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2021. 7. 5 (월) 14~17시, 온라인 생중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시 명동)

주최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선도대학협의회,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2021. 7. 5 (월) 14~17시, 온라인 생중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시 명동)

선도대학 지원 9년 차를 맞아 대학 등 교육현장에서 거둔 사회적경제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회적경제 대학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여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 (https://youtu.be/5gqWvnyXHyQ)

문의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성공회대) 이상훈 교수 010-6253-0476, shjayhawk@skhu.ac.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92

시간	내용		연사 / 역할
14:00 ~ 14:10 (10)	개회사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4:10- 14:30(20)	기조 연설 I	사회적경제 대학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14:30- 15:00(30)	기조 연설 II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진행 현황과 성과 및 발전방향	이호 (군산대학교) 김형미 (상지대학교)
15:00- 16:00(60)	토론	기조 발제에 대한 토론	좌장 : 이상훈 (성공회대) 서 울 : 조상미 (이화여대) 수도권 : 장종익 (한신대) 강원권 : 강승호 (강릉원주대) 충청권 : 전방연 (나사렛대) 영남권 : 박세현 (대구대) 호남권 : 이재민 (전주대)
Break Time(10)			
16:10- 17:00(50)	선도대학 수료생 토크 : 선도대학을 통한 나의 변화		사회 : 김승균 (가톨릭대) 김정현 (성공회대 '17.) 최우진 (성공회대 '19.) 엄아린 (가톨릭대 '19.) 성원형 (가톨릭대 '19.)

주최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선도대학협의회,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

순 서

발 제 문

1.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 및 사회적경제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 ····· 1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진행현황과 성과 및 발전방향 – 학부과정 중심으로 ····· 29
이 호(군산대학교 교수)

3.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진행현황과 성과 및 발전방향 – 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 ·· 53
김형미(상지대학교 교수)

토 론 문

4. 조상미(이화여대 교수) ····· 65

5. 장종익(한신대학교 교수) ····· 75

6. 강승호(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89

7. 전방연(나사렛대학교 창업교육센터) ····· 93

8. 박세현(대구대학교 교수) ····· 99

9. 이재민(전주대학교 교수) ····· 105

1.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 및 사회적경제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 및 사회적경제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

제1절 서론

고령화, 양극화,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출현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2017년 범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인력 양성, 자본 확충, 제도 개선. 판로 확대를 통해서 추진하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종합계획에서 진단하는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의 문제점은 첫째, 다양한 인재가 유입되는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둘째, 종사자 대상의 교육이 미비하며 셋째, 일반 국민의 인식과 이해도가 낮으며 넷째,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진단에 입각하여 5개 분야 32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재 양성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 지원에 의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자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재 양성의 구조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교육시스템을 진단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정부 지원에 의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업은 오랜 기간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었고 가장 저변이 넓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검토를 통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의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간접적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인재 양성에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연구의 방법론을 설명하고 제3절에서는 주된 연구 내용을 제시한다. 제4절에서는 요약과 함께 향후 인재양성 추진에의 함의를 제시한다.

제2절 연구 방법

사회적경제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3차례의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주로 사회적경제 교육시스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FGI는 교육운영기관, 교육전문기관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세 차례 개최되었다. 모든 면접은 화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녹취되어 분석되었다. 교육운영기관 FGI는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한 것이며 교육전문기관 FGI는 교육운영기관의 교육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서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교육운영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된다. 우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 설치된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은 주로 시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시군구 단위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은 시도 또는 광역 사회적경제지원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교육 사업을 실시하며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은 진흥원, 권역이 위치한 시도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예산 지원을 받아서 교육사업을 실시한다. 광역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시군구 사회적경제지원기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중앙 지원기관 관계자 4명을 모시고 이루어졌다. 교육전문기관 FGI에서는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는데 비소사이어티, 사회투자지원재단, 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쿱비즈 등 사회적경제 교육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집단면접에 응해 주었다.

교육운영기관과 교육전문기관에 대한 주요 질문내용은 교육 대상, 교육 기획,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교육예산, 교육전문기관 선정,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교육 성과평가 등의 실태이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이 진행되었다.[1)]

제3절 사회적경제 교육 시스템의 현황

1. 교육 시스템의 현황과 평가

1) 대상별 교육자원 배분

사회적경제 교육의 대상자는 창업자, 사회적경제기업 재직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시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경제 기업 재직자를 세분하면 기업리더, 관리자 및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종사자,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종사자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 관련 각 분야의 컨설턴트, 강사 등의 전문가들로 세분할 수 있다.

창업자 교육은 많고 이에 비해 재직자 교육은 과소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창업 교육 중심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한 참석자는 바람직한 교육 자원의 배분 비율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재직자 30%, 지원조직 20%, 창업자 20%, 나머지 일반인 10%, 공무원 10%, 기타 10%를 제시하면서 창업자에 대한 교육 자원 배분을 대폭 줄이고 재직자와 지원조직에 절반의 자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재직자 교육에 대한 자원 투입 부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현재는 주로 교육이 창업자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1) 반구조화된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을 참조

산이 창업자 중심으로 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To be는 창업한 이후에 사회적경제 성장 조직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사자 쪽에 더 많이 교육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초기 창업과정과 유입에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 활동가들이나 실무자들, 노동자들을 위한 성장프로세스는 전무한 편이다. 일방적인 노동시장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재직자 내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리더에 대한 교육이 재직자 전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비해, 중간관리자와 일반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초기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서 기업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고 사회적기업이 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 리더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발전하면서 중간관리자와 조합원의 층이 두터워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교육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80% 이상은 창업교육 중심으로 나머지 1~20%가 종사자교육인데 그 안에서도 임원교육 중심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인 교육량을 조사해보니 리더교육은 있는데 중간관리자와 종업원 교육은 많이 없었으며, 특히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이 거의 없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 공급을 지원하는 예산 및 자원 투입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재직자들의 교육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업무 과중에 따른 시간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초 센터들이 소수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해 시간 내서 교육받으러 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원활히 모집되더라도 수료하는 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즉, 전문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수강자들의 만족감은 높지만 수강자들을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까지 교육 받게 끌고 오기 어려웠다.”

사회적기업 대표 및 중간관리자급 역시 기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 인해 교육 참여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이 매우 크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이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는 평가이다.

“조직갈등관리를 위한 워크숍 형태의 대표자나 중간관리자급이 3박4일 정도 모여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교육은 시간 내기가 어려운 대표자들의 특성 때문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음. 그러나 일단 교육에 참여하면 만족감이 높음. 그래서 이 과정 참여자들은 시간을 내서 끝까지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함.”

업무 과중에 따른 번 아웃 현상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의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정책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규모가 증가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공공기관 성과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무원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지면 교체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협력이 많은 보직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이 주기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 전체에 대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 교육은 가장 필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학습을 이어가지만 공무원은 정책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비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이들이 많다보니 효과도 떨어진다. 이에 공무원 교육은 보다 상위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가치 철학을 갖춘 강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역량과 사회적경제 가치 철학이 융합된 직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석자들은 역량과 철학이 융합된 인재를 키우는 방은으로 사회적경제 종사자 풀 내에서 강사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저는 강사관리와 양성이 기존 강사를 모셔다가 사회적경제를 이해시키고 사회적경제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영역의 기술적이고 정보에 대한 부분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훈련해서 그걸 기반으로 피어컨설팅을 한다든지 선배그룹의 교육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5년 동안 진흥원으로부터 강사양성과정을 하고 있는데. 항상 모집 후 정정하는 게 사회적경제 강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역량강화교육으로 수정하고 시작합니다. 선발할 때 사회적경제에서 최소 3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로 뽑습니다. .....저희가 맡기 전에는 외부전문가도 뽑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맡게 되면서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3년 이상 활동하셨던 분들로 강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차라리 그분들이 전문 강사 보다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반 시민의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운영기관 참석자와 교육전문기

관 참석자 사이의 이견이 나타났다. 교육운영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반 시민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향후에도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저변이 확대되고 소비 활동이나 후원 활동이 늘어나고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동반되지 않고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이 확대된다면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교육운영기관 관계자들의 일반 시민 교육 확대 의견과 달리, 교육전문기관 관계자들은 일반 시민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지만 인식 제고를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교육보다는 홍보, 의식 개선 캠페인 등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 교육 내용의 문제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유사한 교육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가장 많았다. 유사한 내용의 교육이 비슷한 시점에 여러 교육전문기관에 의해 중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지역의 교육 내용이 같아진다. 개강일도 3, 4월에 시작해 6, 7월에 마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비슷해진다."

"중복되는 교육이 너무 많다. 교육전문기관별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조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역의 중간조직에서 교육이란 것이 같은 커리큘럼이 반복됩니다. 사실은 초창기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듣고 나면 다시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사 교육의 반복 현상은 크게 표준화된 교육 증가 요인과 재정지원기관의 요

구 요인 그리고 교육운영기관의 조정 실패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난 10여년 사이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회적경제 교육이 늘어나고 이러한 교육의 내용은 표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표준화된 교육들이 늘어나고 모집 노력이 필요 없는 충분한 수의 교육생이 확보되면서 유사한 내용의 교육이 다수의 소규모 센터들에서 양산되었다.

"모집의 용이성이 가장 높은 곳은 예를 들어 협동조합에서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과 같은. 어떤 정부지원사업을 하면서 필수교육으로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어떤 컨설팅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정부의 절차에 맞추기 위한 양식에 대한 교육. 교육이 처음에 그랬다가 대형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또는 해당 지자체들이나 소규모 지원센터들에서 별 사실 기획 없이 다른 교육과정을 거의 베껴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이 센터 저 센터에서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교육 사업의 재정적 지원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교육은 일반 시민 대상의 교육 비중이 높고 그 내용은 사회적경제의 기초 이해 또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설립 및 창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교육 내용이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으며 예산 프로세스에 따르다보면 개강 시기도 유사해진다.

"자치단체에서 기본 틀의 내용을 정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 교육을 하다 보면 발주처에서 동일한 내용을 해 주기 원한다. 일반과정부터 전문 과정이 동일한 내용이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같아진다. 개강일도 3, 4월에 시작해 6, 7월에 마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비슷해진다.....그러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수요는 매우 다양하다."

셋째, 재정지원기관의 일률적인 교육 요구를 교육운영기관이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고 수용해 버린 것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재정지원기관이 교육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교육의 내용을 조율하고 세부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교육운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산 당국이 정확히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도 못하며 그것을 요구하지도 못하므로 교육운영기관이 예산당국과 지역 현장 상황과 조율하여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집단면접 참석자들은 교육운영기관이 충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운영기관이 발주처의 요구와 지역 현장의 교육 수요 및 교육 자원 사이의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재정지원자의 요구와 학습자 및 교육 자원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는 행위를 '교육운영기획'으로 부를 수 있는데 교육운영기관의 교육운영기획력 부재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영역의 프로세스에 기본적인 구성 주체에는 스폰서가 있고 기획자가 존재하고 이걸 딜리버리 하는 강사가 있고 교육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자와 스폰서 사이를 연결하는 브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폰서의 요구만 있고 기획자가 없고 그래서 기획도 없고 강사와 교육생만 존재합니다. 기획자 포지션이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핵심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교육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교육운영기관은 이를 현실에 맞게 조율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중간선을 설득해야 하는 거죠…….하지만 발주처의 과다한 요구를 조정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결국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키게 되고, 결국 내용이 동일한 형태의 교육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자원 ,전문성, 효과성 등 다른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교육 내용의 반복 문제와 함께 성장단계 기업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부재가 지적되었다. 초기 창업 단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축

적되었지만 성장 단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리더에 대한 교육에서도 창업 단계 기업가나 인증 사회적기업 리더에 대한 인증 시점 전후의 교육을 넘어서서 사회적기업 리더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장 이후에 성장단계 속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든지 스케일 업을 해야 할 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의 리더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높다."

3) 교육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가. 평생교육기관

사회적경제 교육의 초창기에는 일반 시민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 지식이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 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넓어졌다.

최근에 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일반 시민 대상의 입문 수준의 사회적경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개설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지원기관과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사이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그 산하에 등록된 기관들과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의집, 여성인력개발센터, 문화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서, 구군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해서 거기서 발굴되는 동아리 리스트와 교육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다. 특히 평

생교육기관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창업하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시간 여유가 있는 이들이어서 일반인 교육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교육의 재원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교육사업 예산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다. 어떤 강사를 써야할지,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등 교육 포맷을 우리(권역별 통합지원기관)와 함께 짜고 있다."

모든 지역 내에서 평생교육기관과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의 협력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간헐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체계적인 교류와 협력이 궤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의 다른 교육자원들에서도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어 보이는 곳이 있다. 회의 참석 등 자문 요청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관이 아직 이런 기관에서 교육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 대상 교육은 이런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지원이나 자문의 협조 의지는 지속적으로 있다."

향후 평생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일반 시민 대상의 입문 수준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담당하고 광역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재직자 등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참석자들 중에 많았다.

"우리 기관 외에 자치구 및 평생 교육 기관에도 관련 교육이 많이 개설된다. 이런 기관에서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을 맡고, 광역 조직이나 전문기관에서는 종사자 교육을 많이 하기를 원한다."

나. 광역과 기초 지원기관

광역 수준의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이 수행하는 교육 사업은 재정지원기관으로부

터 의뢰받는 교육과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교육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교육은 일반인 대상 교육인 경우가 많으며 이에 비해 후자의 교육은 현업 종사자들의 역량 교육,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교육, 사회적기업 대표자 교육,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및 전문 컨설턴트 양성 교육 등이다.

과거에는 광역 사회적경제지원기관들이 일반 시민 대상 교육도 수행했지만 다른 기초지자체 지원기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광역 사회적경제지원기관들은 한정된 자원인 이들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사회적경제기업 재직자 교육에 더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보다는 사회적경제 현업 종사자들의 역량교육, 서울시 및 본 센터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공무원이나 중간지원조직 교육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인 대상 사회적경제 이해교육, 기초교육, 창업교육은 거의 없다."

"우리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교육은 연간 20회 정도 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난감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조직원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정의 내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

광역 지원기관과 기초 지원기관이 사회적경제 교육 관련해서 맡는 역할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광역 지원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및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기초 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의 이해 수준의 낮은 교육을 맡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광역 지원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 지원기관은 일반 시민 대상의 기초 교육을 맡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기초 지원기관에서는 기초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일반 시만 대상의 기초 교육을 주로 수행하고 광역 지원기관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한다.

과연 이러한 역할 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마을 단위

의 공간을 포괄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유의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역에 특화된 업종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초 지자체에서 교육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다루기보다는 지역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경제 이해 교육,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의 교육은 광역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론은 광역에서 진행하고, 각 지역은 지역에 특화된 관광이나 돌봄 등 사회적경제와 (지역 업종이나 지역 문제를) 블렌딩을 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를 제안한 바 있다."

"기초는 주체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기업 설립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면 광역에서 담당해주고, 이들 중 유망한 이들이 나오고 경쟁력이 있으면 다시 지역이 연결 받아서 컨설팅처럼 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교육은 육성이나 컨설팅의 형태가 좋을 것이다."

다. 교육전문기관

사회적기업 육성 초기에 비해 다양한 교육전문기관이 성장했으나 아직까지도 교육만으로 수익을 내는 기관은 거의 없다는 평가이다. 교육전문기관으로 거명되는 기관들 대부분이 컨설팅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교육전문기관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있을까. 다른 사업과 병행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갔을 경우에 비전이 과연, 예를 들면 이익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교육만으로 하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애당초 지금 건강하게 교육전문기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교육전

문기관이 자리 잡았다면 인재양성센터가 세워진 이후에 이런저런 요소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교육전문기관이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된들 기존 교육전문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인재양성센터가 교육기획이든 개발이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구조로만 자리 잡는다면 인재양성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교육 예산의 수준과 구조

지자체나 사회적기업 진흥원에 의한 사회적경제 교육은 정부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이나 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예산의 수준과 구조가 교육의 제공기관에게 중요하다.

교육훈련 예산의 수준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기보다 대립된다. 단가가 과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다른 교육 관련 예산이나 시장가격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차는 실제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제 실시하는 교육전문기관과 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교육운영기관의 시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예산은 과소책정되어있죠. 10년 전과 식대, 운영인력 인건비가 지금과 별 차이가 없고. 실제 요구되는 수준은 높아지고."

"공공에서 너무 교육단가를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위탁기관에 예선을 넘기고 나서 종종 예산을 남겨주는 기관이 종종 있다. 예산 사용의 방법의 복잡함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반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센터 입장에서는 기관들이 운영 시 비용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 단가의 고저에 대한 문제 외에 교육훈련 예산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예산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 역시 운영기관과 전문기관 사이에 강조점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교육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교육 실행 예산의 부족 문제보다 교육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교육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교육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본다. 교육운영기관은 지역 내 학습자의 수요와 실제 교육시행기관의 상황 그리고 발주처 또는 재정지원기관의 요구를 조화시켜야 하므로 교육운영기획이 핵심적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전문기관은 교육 예산의 단기 성과연동 통제 방식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한다. 일부 교육 예산에서 핵심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칙으로 당기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당기 예산 삭감 방식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방식으로 비판된다. 또한 성과 연동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성장이 아니라 수료율 등의 학습자의 성장과는 관련이 적은 지표라는 것도 비판하고 있다.

> *"일부 교육과정에서는 잘못된 성과연동으로 예산 구조가 짜인 곳도 있습니다. 수료율, KPR을 달성하지 못하면 예산을 깎아버리는. 차기도 아니고 현재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설계된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한 것 같고. 정산이나 절차,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할 지점이 많죠."*

2. 교육 프로세스별 현황 및 평가

교육 프로세스는 교육 기획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실행 그리고 교육평가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미 교육 대상이 확정된 교육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충분하지만 실제 교육 대상자 결정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홍보와 매칭의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1) 기획과정, 기획과 교육 실행 사이에 2) 정보 제공과정, 실제 학습자의 신청과 모집 그리고 선별의 과정을 포함

하는 3) 매칭 프로세스 그리고 4) 교육 평가를 차례로 검토한다.

1) 교육 기획

앞 소절에서 교육운영기관의 교육운영기획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거론된다.

첫째, 교육예산에 교육 기획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획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기업 정책 초기에는 교육예산에 기획 관련 비용이 책정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비용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기획과 관련된 예산을 넣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둘째,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 전담자나 교육 전문가를 키우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교육운영기관 내에서 다른 업무에 비해 교육 업무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이슈이고 위험도가 낮은 업무로 간주된다. 교육담당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가 맡은 업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결과적으로 교육 업무에 신입직원을 배치하고 성장하면 다른 업무로 배치 전환되어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 전문가가 되려면 각각의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데 교육담당자들이 경력이 쌓이면 더 중시되는 업무로 옮겨가고 전문성과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기관 집단면접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의 성패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그 이유는 기획 과정이 학습자의 요구 파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요구 파악을 위해서는 학습자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교육에 배치될 수 있다. 어떤 참석자는 전체 교육에서 기획이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언급했고 다른 참석자는 9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교육운영기관의 교육기획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자체의 교육기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위기업의 교육기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작은 고용 규모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단위기업의 교육기획을 강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의 교육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업 교육기획자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받은 이들이 각자의 기업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획 전문 민간기관이 성장하여 기업의 교육기획을 대행 또는 지원하는 것이고 셋째는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의 기획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교육기획을 대행 또는 지원하는 것이다.

2)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정보 제공

각 교육기관에서 기획을 통해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학습자와 매칭을 통해서 비로서 실행된다. 교육 프로그램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고 학습자와 프로그램 간의 적절한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학습자와 교육 프로그램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원래는 사회적경제 모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정보만이 아니라 강사 정보와 인재 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포털로 기획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에서 개설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교육내용과 강의 개설 시기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은 정보의 풍부함과 체계성에서 모범이 된다.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정보가 모이면 학습자가 유입될 것이고 학습자가 늘어나면 더 많은 교육공급자들이 강좌 개설 정보를 올리게 되고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홍보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학습자의 유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면 진정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교육 플랫폼이 작동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첫째, 정보를 모으고 업로드 하는 운영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자 했으나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했고 현재는 위탁운영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둘째,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전문기관 스스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학습자들이 플랫폼에서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수강 신청도 할 수 있게 하려했지만 실제 구현되지 못했다. 넷째, 강사 정보 제공의 양과 질을 제고하길 희망했다. 수강 신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되지 못했고 강사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의 난관에 부닥쳤다.

"강사 정보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강사정보 업데이트를 기본으로 하며, 운영하는 기관이나 진흥원에서 활동하는 강사 정보도 업데이트 하고 있지만 이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사 정보가 실제로 얼마만큼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많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서울시의 포탈과 유사한 취지로 전국의 모든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정보를 모두 모으고자 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진흥원 내 교육 프로그램 정보만 올라 있다. 수강 신청의 경우에도 학습자가 수강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진흥원에서 수작업으로 전달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진흥원에서도 강사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록하고 강사의 질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었는지, 학습자에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품질 정보가 축적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매칭

교육 내용이 잘 기획되더라도 해당 교육의 목표 집단이 반드시 수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 집단과 거리가 먼 학습자들이 수강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교육 만족도와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

"조직의 종사자 역량 강화에 있어서도 모집은 되는데 와서 보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닐 수도 있고,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요즘은 주입식이 아닌 교류를 통한 교육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적합하지 않은 이들이 많아지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이 실시되는 시기가 집중되어 있고 지역별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수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학습자들이 일단 수강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홍보 자료의 지면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를 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학습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설사 교육전문기관이 홍보물을 통해서 교육내용을 설명했을지라도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은 분석인데 현장에서는 영업으로 받아들이는" 괴리가 늘 상존한다.

넷째, 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육생을 선발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갖지 못한다. 신청자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모두 참가시키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다.

"우리 기관도 교육생 선발 절차가 없다. 신청자는 거의 모두 참가시킨다. 그러다 보니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줘도 인지하지 못하고 수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일부과정에서 기준을 두고 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좀 걸러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현재 교육 매칭 과정에서 학습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기능의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매칭 과정은 교육 공급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해 홍보하면 학습자들이 선택하는 구조이다. 문제는 학습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고 조언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습자의 정의 상 학습할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 매칭 과정은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진단도구가 제공된다면 자신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학습에 대해 상담해 주는 중립적인 조언자가 있다면 학습자의 선택은 훨씬 정확해 질 것이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현 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으로 가고 있어 현장에서 필요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강사 문제는 강사 역량이 아니라 학습코치나 학습코디네이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는 일들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현 상태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찾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육전문기관이 프로그램을 나열하고 학습자들이 골라서 가다보니 실망하기도 하는 과정의 반복인데, 중간에서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교육을 권하는 코치들이 있었으면 한다."

4) 교육 평가 및 성과 공유

현재 교육운영기관은 체계적인 교육 평가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운영기관 인터뷰에서 실제 활용하는 교육평가의 방법들을 알아본 결과 교육 대상자와 간헐적 접촉 및 내부 관계자들 사이의 비공식적 평가가 주된 평가 방식이었다. 게다가 최근 교육의 형식과 교육의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점도 토로하고 있다. 발주처 또는 예산지원기관에서 교육운영기관의 성과 공유 및 상호 학습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초창기에 고용부에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위탁 진행시에

성과보고회를 했었다. 거기에 각 지역 담당자들이 수시로 모여 진행 과정과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공유함. 성과보고 때는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교육전문기관들의 경우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집적해 가고 있다. 교육 참여율이나 수료율과 같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교육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고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전문기관 관계자들은 운영기관에 의한 평가가 만족도 조사 등의 반응평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예산의 제약에 의해 더 이상의 평가 즉, 학습평가, 행동평가 및 기여평가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 단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행동평가나 기여평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행 교육 평가는 만족도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궁극적으로 학습평가, 전이 평가까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은 마칠 때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 정도만 하고 끝난다. 그럴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후 평가시스템을 논의해서 교육받은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의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제4절 결론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적경제 교육이 성장하면서 학습자, 교육 공급기관이 다양화되고 교육 내용도 발전하였다. 학습자 측면에서 일반 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전환에 관심 있는 이들이 주로 참여한 초기에 비해 사회적경제기업 재직자의 참여가 늘어나고 공공기관이나 중간지원기관, 전문가들의 교육 참여도 늘어났다. 교육 공급기관들은 사회적기업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에서 출발하여 광역 및 지자체 지원기관, 평생교육기관도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전문기관들

도 성장하고 있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 여전히 일반적인 사회적경제 이해나 설립 절차, 지원제도 등에 대한 소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조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재직자와 전문가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개별 주체와 교육 내용의 발전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 생태계 전반의 제도적 과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개별 교육기관의 성장과 교육 내용의 심화와 교수 방법론의 발전 문제와 독립적으로 교육 생태계와 직결된 제도적 과제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것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역량 체계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체계와 자격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역량의 분야와 역량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역량 체계(competency system)이라고 부른다. 역량 체계가 주어질 때 이를 쌓기 위한 교육과정이 구성될 수 있고 역량을 인증하여 자격이나 학위를 부여하는 자격체계가 구성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의 역량에 대해서 역량의 분야와 역량의 수준의 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의 분야와 수준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역량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역량 체계에 기반을 둔 교육 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지 않으며 학습자들이 자신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의 중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필요한 교육의 중복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역량 체계가 확립되고 이에 기반을 두어 교육 공급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의 역량 체계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소사이어티(2019)에서는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역량 체계를 제시하고 교육과정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비소사이어티(2019)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재직자의 역량 분야를 경영기획/경영평가, 사업기획, 프로젝트 관리, 생산관리, 홍보 및 마케팅, 교육기획/운영/평가, 세무회계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응한 교육과정을 도출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역량 체계와 교육과정 체계가 합의되고, 품질이 인증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경제 자격증이나 이수증, 학위증이 부여될 수 있다. 품질이 인증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학점을 부여하고 일정 학점 이상으로 일정 분야의 학점을 이수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학점은행제와 유사한 모델이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인 역량 분야와 수직적인 역량 수준에 대한 체계를 보여주는 사회적경제 역량 체계가 수립되고 이에 대응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체계의 지도가 그려진다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필요한 역량을 취득할 수 있을지를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고 필요할 때 상담자의 조언을 받아 학습을 진행해 갈 수 있다.

사회적경제 역량-교육과정-인증 체계의 수립은 대학의 참여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역량-교육과정-인증 체계는 전체 사회적경제 교육에서 대학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원활한 인력양성의 흐름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대학의 교육 과정 전문화와 체계화 그리고 특성화의 노력은 필수적이겠지만 대학 공동의 노력 없이는 사회적경제 역량-교육과정-인증 체계의 수립이 어렵고 이러한 통합적 체계 없이는 사회적경제 교육의 질적인 도약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 공동의 협력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부록 1] 교육운영, 전문기관 FGI 질문지

* 아래 내용은 FGI에서 다룰 내용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부담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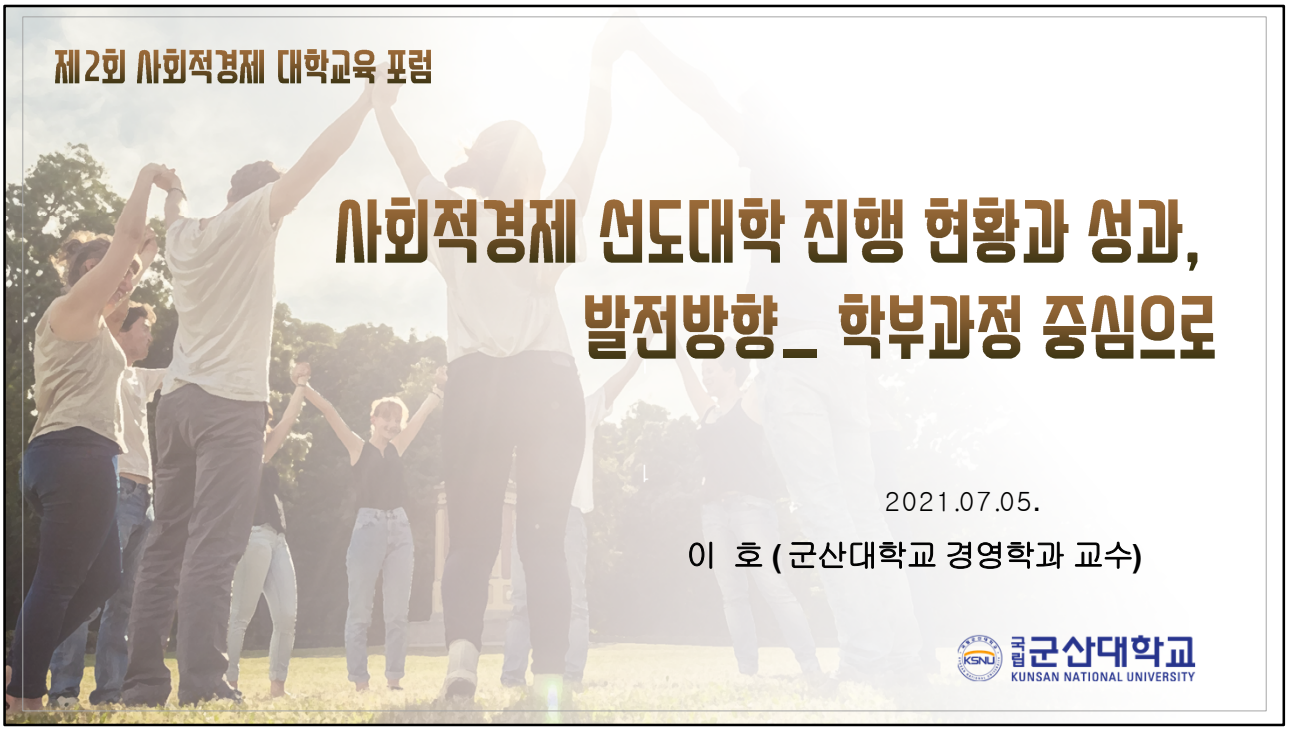
① 교육대상은 크게 일반인/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중간지원조직/(예비)창업자/공무원 및 공공기관/교강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행 교육대상별 교육자원 배분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바람직한 배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② 교육대상 모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는 어느 집단이며 상대적으로 모집이 쉬운 대상은 어느 집단인가? - 모집의 난이도는 잠재대상자의 부족 때문인가, 교육내용 기획의 문제인가? 아니면 홍보의 부족 때문인가?
③ 교육대상 모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는 어느 집단이며 상대적으로 모집이 쉬운 대상은 어느 집단인가? - 모집의 난이도는 잠재대상자의 부족 때문인가, 교육내용 기획의 문제인가? 아니면 홍보의 부족 때문인가?
④ 교육내용의 기획 - 운영기관에서 기획을 하는가, 위탁기관에서 하는가 아니면 기획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는가? - 기획에 투입되는 인력, 자원, 시간은 어떠한가? - 기획 과정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가? 가장 기획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 교육 수요 파악을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가? - 교육 수요에 맞는 공급자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 기획에 투입되는 자원이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⑤ 교육대상자들이 교육훈련 정보를 얻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 교육훈련의 존재 여부 – 교육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 교강사에 대한 정보 부족 – 자신에게 맞는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⑥ 교육대상자들이 실제 교육훈련을 이수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 교육장소와의 접근성 – 교육시간을 맞추기 어려움 – 교육시간을 내기 어려움 – 무료 교육으로 인한 책임성 부족
⑦교육대상자들의 욕구나 민원은 잘 수용되고 있는가? –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 여부 – 교육대상자들의 민원 창구 운영 여부 – 욕구와 민원 수용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가
⑧ 교육훈련 예산을 확보,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 교육예산의 과다 또는 교육예산의 과소 – 성과와 연동된 예산 구조 – 용처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와 증빙 – 교육사업당 예산규모의 과소, 시장가격 이하
⑨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 미리 기관이 내정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 능력 있는 교육전문기관의 부족 – 유효경쟁의 부재 또는 과당경쟁 – 교육전문기관에 대한 신인도 평가의 어려움 – 제안된 교육내용의 전문성 평가의 어려움 – 선정평가자 전문성의 부족 – 기존 교육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존재 여부 및 활용 여부

⑩ 교육 과정의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 모니터링의 주요 요소 – 모니터링에 대한 기관의 반응 또는 대응 – 모니터링과 컨설팅의 결합?
⑪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교육 성과의 측정 주체는 누구인가? – 운영기관에 교육성과가 잘 축적되는가? – 교육 성과 지표의 존재 여부 – 교육 성과 지표의 적절성 판단 – 교육 성과 지표의 환류 메카니즘 부족 – 교육 성과 축적을 위한 정보 시스템 부족 – 프로그램 평가 vs. 기관 평가

2.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진행현황과 성과 및 발전방향(학부과정 중심으로)

이 호(군산대학교)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진행 현황과 성과,
발전방향_ 학부과정 중심으로
2021.07.05.
이 호 (군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PRESENTATION
CONTENTS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Chapter I.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개요 및 목록
Chapter II.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주요지표(2018년~2020년)
Chapter III.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과정설계_비교과 프로그램
Chapter IV.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 지원금(2018년~2020년)
Chapter V. 학부과정 각 대학별 사례
Chapter VI.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 시사점 및 과제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사업 개요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학부과정

(2018년)

- **(목표)** 사회적경제계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리더양성**
- **(추진방향)** 대학(원)생 및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미래의 사회적경제계를 이끌 핵심인재로 성장** 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사회적경제 교육과정(비학위과정)**을 제공
- **(모집대학 수)** 5개교
- **(1개 대학(원) 당 사업예산)** 115백만원 (₩580,000,000원)

– 학부과정 개설 트랙 추가
– 대학을 통한 총괄적인 사회적경제 핵심 인재 양성 체계 마련
– 기본(1학기), 심화(2학기): 수강생의 역량 단계에 맞춰 과정을 촉진하는 교육과정을 설계
– 대학교 특성에 맞는 과정 운영
– 수강생은 인턴십· 프로젝트 중 반드시 1개 과정 이상 참여해야 함

3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사업 개요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학부과정

(2019년)

- **(목표)** 사회적경제계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리더양성**
- **(추진방향)** 대학이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으로의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모집대학 수)** 4개교, 선도형(2개교), 신규 확산형(2개교)
- **(1개 대학(원) 당 사업예산)** 115백만원 (₩580,000,000원)

– **(선도형)**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리더과정' 운영 대학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규 학위과정(학부,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이 지원 가능
– **(신규 확산형)** 신규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향후 사회적경제 정규 학위과정 설치 계획이 있는 대학이 지원 가능
– 지역과 현장, 운영 대학 간 교류 행사 개회 등 협업 지원
– 지역 내 민• 관• 학이 함께 하는 연계 사업 추진

4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사업 개요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학부과정

(2020년)

- **(목표)** 대학의 전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및 현장 사회적 경제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 기능
- **(추진방향)** 대학 내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설뿐만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사화적경제조직이 결합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확대
- **(모집대학 수)** 4개교
- **(1개 대학(원) 당 사업예산)** 115백만원 (₩580,000,000원)

- 선도대학 지정에 따른 사업명 변경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
- 대학의 대응투자 최소 요건 설정(5%)
- (대학생과정) 학부생 대상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진로탐색 도모
- 수강생 전원을 대학생으로 선발하여 35명 이상 모집

5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목록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리더과정)

2013년 1기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부산대학교
2014년 2기	부산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신대학교
2015년 3기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16년 4기	대구카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우석대학교

2017년 5기	우석대학교
	부산카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2018년 6기	국민대학교
	충북대학교
2019년 7기	성공회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2020년 8기	성공회대학교
2021년 9기 (진행중)	성공회대학교
	상지대학교

(학부과정)

2018년 6기	한양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2019년 7기	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2020년 8기	카톨릭대학교
	한남대학교
	부산대학교
2021년 9기 (진행중)	가톨릭대학교
	군산대학교

6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목록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9년차 누계 31개 대학

(3회 운영)

- (부산대) 리더과정 : 2회, 학부과정: 1회
- (한양대) 리더과정: 2회, 학부과정 :1회
- (성공회대) 리더과정: 3회

(2회 운영)

- (우석대) 리더과정 : 1회
- (대구카톨릭대) 리더과정: 1회, 학부과정 :1회
- (카톨릭대) 학부과정: 2회
- (서강대) 리더과정: 2회

7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주요지표(2018년~2020년)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학부과정

- 7개 대학 지원자 558명 이상 수강생은 411명, 평균 수료율87.07%
- 총 교육시간 1,266시간이며, 인턴십 경험 140명 이상

연도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2020
대학	한양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전주대학교	이화여대	카톨릭대학교	한남대학교	부산대학교
학부	o		o	o	o	o	
대학원	o	o		o		o	o

8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과정설계_비교과 프로그램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학부과정

- 학부과정에서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프로젝트와 현장탐방을 진행함
- 인턴십과 국외연수는 대학이 공통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진행함

대학	연도	강조점	인턴십	프로젝트	현장탐방	국외연수	비고
한양대학교	2018	소셜 이노베이터양성	o	o	o	o	'18년 사회혁신융합 전공개설
대구카톨릭대	2018	청년 사회적경제 리더 배출	o	o	o	o	리빙랩 활용
전주대학교	2019	리빙랩활동과 사회적경제의 연결, 활동가 양성	-	o	o	-	리빙랩 실천
이화여자대	2019	혁신성장 기여 인재 지역연계 선도대학 모델	o	o	o	o	17개 대학, 30개 학과생들 참여, 소셜랩
카톨릭대학교	2020	대학인프라 활용 지역과 사회적경제 핵심인재양성	-	o	o	-	장학금 절반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지급
한남대학교	2020	체인지 메이커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o	o	o	-	'20년 학부 사회적 경제 기업 학과 개설
부산대학교	2020		o	o	o	-	

9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원금(2018년~2020년)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학부과정

- 지원금 누계 총액은 812,000,000원 이며, 누계 총액은 961,760,000원

※총액 =진흥원사업비+기관 자부담금+ 수강생 자부담금

- 대구카톨릭대와 이화여자대학교는 수강생 자부담금이 있으며, 다른 타 대학은 수강생 자부담금이 없음

연도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2020
대학	한양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전주대학교	이화여대	카톨릭대학교	한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지원금(백만)	7개 대학 총 812						
총액(백만)	961.76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1.(2018년도6기)한양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사업목표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Social Innovator 양성

교육 과정 구성

- 학기 중 : 기초이론,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실습(1학기), 심화이론(2학기),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 방학 중 : 단기 인턴십, 사회혁신 캡스톤디자인, 글로벌 프로젝트(APYE)
- 수료 후 : 장기 인턴십 제공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Social Innovator 양성

- 이론과 현장연계 사회적경제 교육체계 수립
- 교육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HYU사회적경제 네트워크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연계 생태계 조성

11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1.(2018년도6기)한양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성과 목표

지표명 / 구분	지표내용	성과목표 및 결과		비고
		목표	결과	
모집인원	한양대생 20명 내외, 타 대생 20명 내외(총40명)	40명	59명	
수료율	최종 선발인원 대비 수료인원	90%	86%	최종선발36명
수료인원	최종 수료인원	36명	31명	
만족도	학생 교육만족도	90%	95%	
	강사진의 학생 만족도	90%	90%	
	인턴쉽 수행기관의 학생 만족도	90%	90%	
인턴십`프로젝트 참여율	단기 인턴십, 캡스톤디자인,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율	100%	100%	

12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1.(2018년도6기)한양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주요실적

- 교육과정을 개발
-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행 및 후속 프로젝트 지속
- 사회적경제 협력 네트워크 통한 사회적경제리더과정 교육활성화
- 사회혁신 통합 교육과정 운영

13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1.(2018년도6기)한양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인턴쉽 및 국내외 연수

1. 단기 인턴십

◦ 기간 및 급여

- 여름방학 중 8주(1일 8시간) 근무
- 월 급여 80만원 지급

◦ 대상별 지원체계

- 한양대: 인턴십기관 부담(40만원) + 한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40만원)
- 타교생: 인턴십기관 부담(40만원)

2. 장기 인턴십

◦ 장기 인턴십1 : 한양대 재학생 대상

- 학기 중 16주(1일 8시간) 근무(월 급여 80만원 지급)
- 인턴십기관 부담(40만원) + 한양대학교 현장실습 지원센터(40만원)
- 최대 15학점 인정(사회혁신융합전공 이수학점 인정)

◦ 장기 인턴십2 : 타교생 대상

- 총 16주(1일 8시간) 근무
- 사회적경제 진로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인턴십 매칭

14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1.(2018년도6기)한양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국내 현장 탐방 : 사회적경제 탐방(매학기)

◦ 서울·경기 사회적경제 현장 방문

- 서울 대표적 사회적경제조직 방문(성수밸리, 성미산 마을 등
- 경기 위례신도시 따복공동체, 안성 의료생협 등 방문

◦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현장 방문

- 원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홍성 홍동마을 등 방문
- 부산 영도 지역재생 사례 등 조사

해외현장 탐방: 글로벌 익스체인지 프로그램(APYE)

◦ 한양대학교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운영하는 청년 교육프로그램

- 청년들이 UN SDGs(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 한양대학교는 2016년부터 매년 APYE에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음
- APYE 프로그램 교육체계

15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1.(2018년도6기)한양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특징

◦ 한양대학교는 공동체에 책임감(Public Mind), 사회적 가치창출역량(Value Creation), 사회문제해결 실천을 위한 자원연계역량(Glovbal Networking) 등 3대 핵심역량을 갖추고 세상과 공감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체인지메이커를 양성하고자 커리어 성장단계를 아우르는 사회혁신 통합 교육과정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 사회적경제리더과정(학부)는 커리어 패스를 찾아가기 위한 기초단계로 설계되었음

- (1학기)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이론과 디지털마케팅을 학습하고, 여름방학에는 인턴십, Impact Base Camp, Asia Pacific Youth Exchange, Social Business Development Program등 다양한 현장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2학기 심화학습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의 이론과 실제를 종합 정리해보는 경험을 하게 됨
- 참여 학생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함께 사회혁신가로서의 효능감을 맞보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쌓을 수 있음

16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2. (2018년6기)대구카톨릭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사업목표

- 소통, 배려, 실천하는 선구적인 사회적경제 청년리더 양성

교육 과정 구성

세부교육 과정 구성	
전체구성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4과목, 현지학습 및 조사, 인턴십, 프로젝트팀, 국내외 현장연수 포함 42시간
이론 및 심화과정	사회적경제 기본 및 심화이론 연구
세미나	사회적경제 기업 대내외 전문가 초빙 실무특강 및 세미나
현지학습	사회적경제 기업 현지 방문 학습 및 조사
프로젝트팀	아이디어창출/ 현장적용/ 지역연계형 팀별 활동(MTA.La교육방식)
현장 인턴십	사회적경제 현장연수 및 국내외 인턴십 지원
국내`외 현장연수	일본지역 및 해외지역, 국내지역 견학 연수
네트워크 및 저변 확대 (대학원-정책연계)	사회적경제대학원과의 연계교육, 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기업, 현동조합과 연계, 정책`실행 거버넌스와 연계

17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2. (2018년6기)대구카톨릭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성과목표

	설정목표	달성결과	비고
교육부문	교육생모집:35명	41명 입학(117.1%달성)	
	수료목표:85%	35명 수료	2명(2019년)사회적경제대학원 진학예정
창업부문	창업(협동조합포함):예상 목표없음	1팀(5명)창업(예정)	대구카톨릭대학교 구내 소비자협동조합
취업부문	취업(협동조합포함):예상 목표없음	1명 취업	사회적기업'예인다'
그외	수료생교류회 구성	(가)대구가톨릭대학교 2018년 사회적경제리더양성교류회(회원35명)	SNS(단체방)운영

18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2. (2018년6기)대구카톨릭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주요실적

- 사회적기업 취업(2명)
- 사회적경제대학원 진학(2명)
- 공모전(2018 대구소셜리빙랩) 당선(팀 5명) (2018년 경상북도 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 사업) 1차선정
- 지역사회적경제의 창업·성장 및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컨설팅의 통합적 허브체제 구축
- 지역사회적경제의 토대가 될 인적 자원 배출
- 사회적경제대학원과의 연계 교육 체체 확립 및 운영

19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2. (2018년6기)대구카톨릭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일본연수

◦ **2018.07.02.(월) 일정**

- 우메노사토
- 솔라-셰워링(solar-sharing)
- 어묵공장 건물 견학

◦ **2018.07.03(화) 일정**

- 도쿄대학교(東京大學) 구내 생협
- 메이지가쿠인대학(明治学院大学) 견학
- 팔시스템 관련 특강

◦ **2018.07.04(수) 일정**

- NPO법인 '이나게 빌리지 (무지개와 바람)

20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2. (2018년6기)대구카톨릭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특징

◦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효과

- 소통, 배려, 실천하는 청년 사회적경제 리더 배출

◦ 지역의 사회적기업 인적 자원 공급 시스템 구축 효과

- 유형별(아이디어창출형 / 현장적응형 / 지역연계형) 맞춤식」교육을 통한 즉각적 활용형 인재 배출

◦ 창업 욕구 및 수요 확대 효과

- 대학(원)-중간지원기관-연구자네트워크-유관기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 국외연수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선진화 추진

◦ 지역민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심, 참여동기의 증가

☞ 지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의 효과

21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3.(2019년 7기) 전주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사업목표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기반의 사회적경제 혁신적 리더 양성

교육과정 구성

- 1년 3학기제, 각 과목 3학점, 전체 9학점 이수 과정으로 운영
- **리빙랩 프로젝트**를 위한 Hatch, 공유팝업스토어로 실습공간 운영

학기	기간	형식	내용	평가
1학기	15주	강의 현장연수 세미나	. 강의와 토론 . 세미나(공정무역) . 현장연수 및 강의 . 종합발표회	. 출석 . 토론 참여도 . 필기시험, 조별 과제 . 관심분야 에세이 작성 . 개별발표
여름학기 (3학기)	4주	사회적경제 인턴십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교육과정 운영위원 소속단체를 연계	. 학생: 업무수행결과보고서 . 기관: 설문조사
2학기	15주	리빙랩 프로젝트	· 리빙랩 프로젝트 · 세미나(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 출석 . 프로젝트 기획서 발표 . 현장실험

22

03.(2019년 7기) 전주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성과 목표

구분	목표	내용
교육생 모집	70명 이상	- 1학기(사례/이론) : 55명 - 여름학기(사회적경제 인턴십): 20명 - 2학기(리빙랩 프로젝트) : 30명
최종 수료율	95% 이상	- 학기별 학생 목표 및 동기에 맞춘 1:1 맞춤식 교육/컨설팅 병행
최종 수료인원	최소 35명 이상	- 학기별 중단 학생 2명 미만으로 유지
만족도 조사	95점 이상	-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경제 분야 관심도, 취/창업 연계를 위한 컨설팅 병행으로 실질적 혜택 부여
사회적경제 인턴십/ 리빙랩 프로젝트 참여율	100%	- 인턴십 참여 학생의 사전 니즈 및 관심도 조사로 인턴십 기관 매치율 상승 - 1학기 수강생 대상 2학기 프로젝트 수업 연계 시 장학금, 프로젝트 제작비 등 혜택 제공
리빙랩 프로젝트 건수	4테마, 8개	- 디자인씽킹 수업시 대학 내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적용가능 단계로 구체화 - 테마별 팀 코칭 및 1:1 제작 멘토링
향후 지속 계획	학점제로 시작 > 학부 > 대학원 단계별 추진	- 융합 전공 9학점제로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 사회적경제 학부 과정 → 세미 MBA 석사 과정 추진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3.(2019년 7기) 전주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기대효과

- **가족회사 관리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정보 공유를 통해 학생 현장실습지원 및 취업상담을 위한 기본정보자료 활용
- 유료가족기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기업관리 내실화 도모
- 학교-기업-학생 상호간 정보공유 강화 도모
-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홍보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 상시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Feed back 강화로 향후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세부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
-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시설장비의 활용도 증대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4. (2019년 7기)이화여자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사업목표

- 사회적경제리더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재들을 양성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모델을 확립

교육과정 구성

- **사회적경제모듈1 :** 2019.3.14 ~ 2019.5.30 / 매주 목요일 19시 - 21시
- **여름방학 프로그램 :** 2019.6.23 – 2019.6.25 (해커톤 프로그램)/ 2019.7.17 – 2019.7.19 (베트남해외탐방)
- **사회적경제모듈2 :** 2019.8.29 ~ 2019.11.29/ 매주 목요일 19시 - 21시

25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4. (2019년 7기)이화여자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성과 목표

수강생 및 수료생 현황

지원자	선정자	등록자	수료자
102명	67명	64명	52명

- 102명이 지원하였고, 17개의 대학 및 30개의 학과에 재학중인 수강생을 선정
- 목표 수료인원인 32명보다 많은 52명의 수료생을 배출함

26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4. (2019년 7기)이화여자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주요실적

- 12개의 Social Lab을 구성하고 주제에 맞는 교수 멘토와 현장 멘토를 배정하여 **맞춤형, 밀착형 지도**를 하였으며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연계 지도를 통해 Social Impact Projec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 우수성과는 사회적경제협동과정 **Social Impact 포럼**에서 발표하게 하여 파급효과가 제고됨
- **2019년도 사회적경제리더과정 선도형 대학 및 주관대학의로 선정**되어 성과공유회를 본교에서 개최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100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
- 우수성과 발표 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대학의 팀(4개 대학, 총 34팀)이 성과 포스터발표를 진행하여 활발한 의견 공유와 소통의 장이 됨

27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4. (2019년 7기)이화여자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해외 탐방

베트남

◦ 기간 : 2019.7.17 – 2019.7.19
◦ 장소 : 베트남 하노이
◦ 탐방 인원 : 학생 14명, 교수 2명, 직원 1명
◦ 주요 활동
(1) 국립경제대학교(CSIE) 방문 및 장애인사회적기업 SCDeaf 초청 만남
(2) 코이카지원사회적기업 Imagtor 방문
(3) 사회적기업 KOTO 방문
(4) 수공예사회적기업 Vun Art 방문

28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4. (2019년 7기)이화여자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특징

- 이화여자대학교는 사회적경제협동과정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리더과정의 우수 성과를 특성화 사업 **Social Impact Review 발간** 및 **Social Impact 포럼**에 참여 시키고자 함
- 민간, 공공, 학계의 사회적경제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 교육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혁신 **준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함

29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5. (2020년 8기)카톨릭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사업목표

- 대학인프라를 활용 지역과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양성

교육과정 구성

- **(교과과정)** 다각적·통합적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대학 내 인적·물 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셜리빙랩, 소셜벤처, 도시재생' 트랙 운영(본교 사회 혁신융복합전공 교과목 연계, 6개 교과목 운영)
- **(문제해결 워크숍)** 수강생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경 제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문제해결 1day 워크숍 운영
- **(인턴십)**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및 실무 역량을 배양하고자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기관 총 10개소와 연계하여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총 15명)

30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5. (2020년 8기)카톨릭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성과목표

구분			목표	성과
교육 과정	교과과정	총 신청인원	80명 이상	137명
		수강인원	-	74명
		최종 수료인원	60명 이상	73명
		최종 수료율	95% 이상	97.6%
		만족도 조사 결과	90점 이상	85.2점
		교육시간	-	234시간
	(교과과정 연계) 문제해결 워크숍	총 신청인원	-	59명
		총 참여인원	-	59명
	인턴십	참여 학생 수	-	15명
		사회적 경제 기업·기관 수	10개소 이상	10개소
	운영위원회	선도대학 운영위원회	-	2회
		트랙/교과과정 운영위원회	-	3회
		수강생 대표단	-	6회
	종합	정책사업 연계 건수	5건 이상	-
		사업화 연계 건수(육성사업 연계 등)	5건 이상	-
지역 연계 사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사회 문제 선정 과제 수[1]	14건 이상	28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솔루션 제안 과제 수	7건 이상	28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협력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소속 멘토 수[2]	10명 이상	15명
		지역 내 협력기관과의 공동추진 이벤트 수[3]	3건 이상	2건
	종합	총 참여인원[4]	500명 이상	280명
대학협력 네트워크 사업		총 참여대학[5]	15개교 이상	15개
		총 참여인원[6]	80명 이상	41명

31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5. (2020년 8기)카톨릭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주요 실적

구분	교육시간	신청인원	수강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소셜리빙랩 트랙	78시간	58명	32명	31명	96.9%
소셜벤처 트랙	78시간	46명	24명	23명	95.8%
도시재생 트랙	78시간	33명	18명	18명	100%
합계	**234시간**	**137명**	**74명**	**73명**	**97.6%**

- 3개 트랙, 6개 교과목을 통해 총 73명이 수료함
- 3개 트랙 장학금 지급액 총 1,360만원 중 절반인 680만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지급함

32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5. (2020년 8기)카톨릭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특징

- 카톨릭대학이 위치한 부천시 중심의 민·관·산·학 자원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혁신 거점으로서의 기반 마련, 역할 확대
- 섹터 간 경계를 넘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 양성 및 대학생들의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 진로 탐색 지원**
- 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을 본 대학의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향후 지역사회 혁신거점으로의 우호적 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
- 카톨릭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물적, 인적 인프라 기반의 유기적 자원 연계를 통해 내·외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혁신 거점의 자립성 및 책임성 강화
- **장학금 일부를 지역화폐(부천페이) 로 지급**하고 주요 위탁사업을 사회적 기업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등 본 사업의 취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운 영 및 사업비 집행 시행

33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6. (2020년 8기)한남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사업목표

- 체인지 메이커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과정 구성

구분	내용	기간	방법
1학기 (2020년 3~6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I ●사회적경제 워크숍	15주	강의, 외부특강, 팀빌딩, 과제발표
인턴학기 (2020년 7~8월)	●사회적기업 인턴십 ●해외현장방문 ●사회적기업 현장실습	4주	강의, 외부특강, 세미나, 성과보고
2학기 (2020년 9~10월)	●사회적기업 성공전략 (마이크로 디그리)	15주	강의, 외부특강, 액션러닝, 과제발표

34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6. (2020년 8기)한남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	성과지표	목표
목표대비실적 달성률	사회적경제 선도 교육과정 모집	70명(100% 수료)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10개 팀 육성
	교육시간(이론+실습)	총 274시간	현장탐방	20명
	특강교육	7회	현장실습	9명
	개설학기	3학기 (1학기,인턴학기, 2학기)	사회적경제학과 개설	2020년 사회적경제학과 개설
	전방위 맞춤형 기업(지역)지원 건수	120건	지역사회 혁신실적 건수	20건

35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6. (2020년 8기)한남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주요실적

- 사회적경제 세미나 및 체인지메이커 발대식
- **1 단과대학 1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 설명회 개최
-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체인지메이커 페스티벌 개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

36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6. (2020년 8기)한남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특징

-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사회혁신원, 대학혁신사업단)
- 대전권/ 권역/ 전국 소셜벤처경연대회 출전
-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과정 개설

- (학부) 대학교에 사회적경제기업학과 개설

– 2020년 1학기 사회적경제융합대학 사회적경제기업학과 개설

– 온라인 창업 교육 교재에 사회적경제 관련 콘텐츠를 개발

– 대학원) 사회적경제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개설

37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7. (2020년 8기)부산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사업목표

- 사회적경제 핵심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 거점 기능

교육과정 구성

1) 기본 과정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 수업, 기본 이론에서부터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는 사회적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교육

2) 심화과정: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 경영 역량을 갖춘 지역의 멘토와 기업의 실무진을 특강을 통해 수강생들이 창의적 사고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개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실시

3) 현장학습· 인턴십: 인근의 우수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학기 중 현장 탐방, 하계 방학 중 현장체험(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4) 워크숍 및 멘토링, 모의창업경진대회, 공개강의 운영: 수강생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단기간 집중 워크숍 및 모의 창업 경진대회 운영

38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7. (2020년 8기)부산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성과목표

성과관리 항목	목표	달성
① 교육과정 신청인원	55명 이상	42명
② 최종 수료율	95% 이상	100%
③ 최종 수료인원	35명 이상	36명
④ 만족도 조사 결과	95점 이상	96점
⑤ 지역 연계 사업 이행		
- 공개강의 운영	3회	3회
- 현장학습 운영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전문 멘토링	3회 이상	6회
- 지역사회 문제 선정 과제 수	3개 이상	12개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솔루션 제안 수	3개 이상	12개
⑥ 대학 협의체 구축 및 운영 노력 - 대학 협의회 운영	3회	5회

39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07. (2020년 8기)부산대학교 선도대학 사례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주요 실적

- 2021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창업반, 연구반 두 분야 과정별 프로그램 편성, 교육 사업 제안 운영
- **(창업반)**: 선도대학1기 고도화 희망 팀및 2기 신규 지원자 팀 선정,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템 도출, 창업 고도화 실시(LG화학 CSR팀 협력, 창업경진대회 개최)
- **(연구반)**: 지역사회문제해결 도출 사회적경제분야 연구주제 선정, SK 사회적가치 연구원과 연구개발사업 운영(팀별 논문 등재지 게재, 학술대회 발표 참가 등)

특징

◦ 2021년 사회경제 선도대학 **창업반, 연구반** 두 분야 과정별 프로그램 편성, 교육 사업 제안 운영 및 2021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업 내 선도대학 및 `13,`14년도 사회적기업리더과정 **선배와의 만남의장 마련**

◦ 우수 지역 인재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 우수 인재 유치 기회 확보, 이론 및 실무/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전공의 지역 대학생들의 교육 기회 부여,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등 지역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 활성화 도모 등

40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시사점 및 과제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 <u>다양한 학습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을 결합함으로써 학습 시너지 극대화</u>
- **(사회적기업가 정신 이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는 사회적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교육
- **(문제 해결 워크숍)** 수강생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단기간 집중 워크숍 운영
-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사회적경제 인턴십 및 프로젝트 수업에 적용하며 '경험에 의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과정 구성
- **(현장 연수· 인턴십)** 인근의 우수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학기 중 현장 탐방 및 하계 직장체험(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현장 연수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모색
- 기타 모의창업대회, 현장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 활용

41

3.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진행현황과 성과 및 발전방향(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

김형미(상지대학교)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진행 현황과 성과, 발전방향_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

2021.07.05.

김형미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내용

1.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 사업 개요
2.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주요 지표
3.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과정설계 특징
4.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 사업_성과와 과제

1.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사업 개요 1

- 2013년 9월부터 semi-석사학위과정(비학위과정)으로 시작
- (목적) 신규 인력의 사회적기업계로 진입유도, 기존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심화교육 제공
- 매년 3개 대학에 3.5억 원을 고용노동부 지원(대학당 115백만 원)
- (요건)

 - 대학당 20명 이상 수강

 - 1년 과정(190시간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강좌 4개 과목

 - 국내외 인턴십 운영비 포함 지원

1.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사업 개요 2

- 2018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운영사업 ' 으로 명칭 변경
- (목표) 사회적경제계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리더 양성
- 비학위과정 제공 5개 대학 모집 / 연1회 모집에서 학기별 1회 모집도 가능
- 대학당 사업지원예산: 115백만 원
- (2개 트랙 설치)

 -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강화 '석사학위과정'(이하 리더과정)

 - 대학생들의 사회적경제계로의 유입을 목표로 한 '학부과정' 개설

- 대학교 특성에 맞는 과정 운영

 - 인턴십/프로젝트 수업 반드시 편성 , 참여율을 성과관리지표에 반영

- 기본과정(1학기) - 심화과정(2학기) 단계별 과정 운영

1.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사업 개요 3

- 2020년 명칭을 재차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으로 변경
- (목적) 대학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및 현장 사회적경제조직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 기능
- 대학의 대응투자 최소 요건 설정(5%)
- 1년간 현장 중심 과정 구성, 경험을 통한 학습 강조
- (리더과정) 사회적경제조직 최고경영자를 위한 교육과정 (semi-MBA 수준)
- (대학생과정) 학부생 대상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진로탐색 도모
- (수강생) 대학당 35명 이상, 4개 대학 140명 이상

1. 역대 선도대학 목록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학	성균관대 중앙대 부산대	부산대 한양대 한신대	한양대 서강대 경남과기대	대구가톨릭대 광주대 우석대	우석대 부산가톨릭대 서강대	국민대 충북대 대구가톨릭대 한양대	성공회대 강릉원주대 이화여대 전주대	성공회대 가톨릭대 한남대 부산대	성공회대 상지대 가톨릭대 군산대
비고	(리더과정) 대학(원)생, 사회인(사회적경제조직 리더, 시민, 중간지원조직, 공무원) 혼합 구성					(리더과정) 사회인, semi-MBA 수준 (학부과정) 대학생			

- 누계 31개 대학, 9년차
- (3회 운영) 부산대, 한양대, 성공회대
- (2회 운영) 우석대, 대구가톨릭대, 가톨릭대, 서강대

2.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주요 지표 종합 (2013~2020)

- 지원사업비 31억19백만 원 , 대학대응투자 포함 총액 38억여 원, 총교육시간 5041시간
- 지원자 1870명 이상, 수강생 1196명, 수료생 1062명, 평균 수료율 88.0%
- 인턴십 경험 263명 이상
- 지원사업비 대비 1인당 연간 수업비 (수강생 기준 260만 원, 수료생 기준 293만 원)
- 사업비 총액 대비 1인당 연간 수업비 (수강생 기준 320만 원, 수료생 기준 360만 원)
- 2013~2017년 사이 상당수 운영 대학에서 국외 연수 실시
- 학생 부담금은 100만 ~30만 원. 수료 시 80% 이상 장학금으로 환불

3.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과정 설계 주요 특징

- 교육과정 설계: 이론 – 실습 – 현장수업, 다면적 구성

이론	실습	현장수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경영학 과목 중심	워크숍, 프로젝트, 디자인씽킹, 캡스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비교과 프로그램 (현장방문, 연수, 인턴십)

- 교육참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사회적 자본 축적)

–(우석대) 2009년 이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 ' 들과 매월 정기산행 및 월례회

–(성공회대) 2012년 이후 '사회적경제 AMP 과정' 수료생들의 300명 SNS

- 사후관리: 장기인턴십, 취창업 연계, 펀드 투자기회 제공(국민대), 대학원 진학, 학내 창업벤처센터 이용 연계, 대학(원)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 청강(성공회대)

3.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과정설계_비교과 프로그램

대학	연도	강조점	인턴십	프로젝트	현장탐방	국외연수	비고
성균관대학교	2013	사회적기업 창업 연결	○	○	○	-	비즈니스경진대회 개최
중앙대	2013	글로벌 사회적기업가	○	○	○	○	KOTRA연계
부산대	2013	사회적기업가 역량 강화	○	-	○	○	사회적기업창업아이디어대회 참가
부산대	2014	사회적기업가 역량 강화	○	○	○	○	
한양대	2014	사회적경제 국제개발협력	○	○	○	○	이듬해 대학원 개설
한신대	2014	사회적기업가 리더십	○	-	○	○	LMS동영상탑재
한양대	2015	혁신적 주역/생태계형성	○	○	○	○	
서강대	2015	실천추구 교육프로그램	○	○	○	○	아이디어경진대회
경남과기대	2015	지역특화사회적기업전문인력양성	○	○	○	○	사회적경제 교육연수 MOU확대 (25->40)

3.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과정설계_비교과 프로그램

대학	연도	강조점	인턴십	프로젝트	현장탐방	국외연수	비고
대구가톨릭대학교	2016	혁신,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리더	○	-	○	○	취창업, 대학원 진학 연계
광주대학교	2016	자립,선순환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리더 양성	○	○	○	○	2개 연구회 탄생
우석대학교	2016	전북 사회적기업가 양성	○	-	○	○	정기산행모임에 합류
우석대학교	2017	사회적경제 지원 인력 네트워크 장	○	○	○	○	'18년 대학원 학과 개설
부산가톨릭대	2017	사회적기업 미래핵심인재,사회적기업가 역량강화	○	○	○	○	수료생 자치회, 상호멘토활동
서강대학교	2017	차세대 사회적기업가	○	○	○	○	해외인턴십 강조
국민대학교	2018	리더과정을 통한 소셜 벤처 탄생	○	○	○	-	Digitalized Social Impact 체험학습
충북대학교	2018	충청형 사회적경제 리더 양성	○	○	○	○	지자체와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대구가톨릭대	2018	청년 사회적경제 리더 배출	○	○	○	○	리빙랩 활용

3.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과정설계_비교과 프로그램

대학	연도	강조점	인턴십	프로젝트	현장탐방	국외연수	비고
한양대학교	2018	소셜 이노베이터 양성	○	○	○	○	'18년 사회혁신융합전공 개설
성공회대학교	2019	사회적경제인 경영역량 제고	–	○	○	–	팀아카데미 방법론 적용
강릉원주대학교	2019	사회적경제 리더를 위한 융합, 현장연계형 교육	–	○	○	○	지역특화 리빙랩 프로젝트
이화여자대학교	2019	혁신성장 기여 인재 지역연계 선도대학 모델	–	○	○	○	17개 대학, 30개 학과생들 참여 , 소셜랩
전주대학교	2019	리빙랩활동과 사회적경제의 연결, 활동가 양성	–	○	○	–	리빙랩 실천
성공회대학교	2020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	○	○	–	현장문제 해결 세미나 중심
가톨릭대학교	2020	대학인프라 활용, 지역과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양성	–	○	○	–	장학금 절반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지급
한남대학교	2020	체인지 메이커로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	○	○	–	'20년 학부 사회적경제 기업학과 개설
부산대학교	2020		○	○	○	–	

4. 사회적경제 선도대학_성과와 과제_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

- (성과1) 공공의 마중물을 활용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성과2) 학부, 대학원에서 사회적경제 전공을 개설하거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
- (성과3) 사회인의 고등교육으로서 양질의 사회적경제 교육 수행 (평생교육기관 역할)
- (성과4) 사회혁신, 사회적경제에 관한 대학의 태도 변화, 관여도 향상

- (산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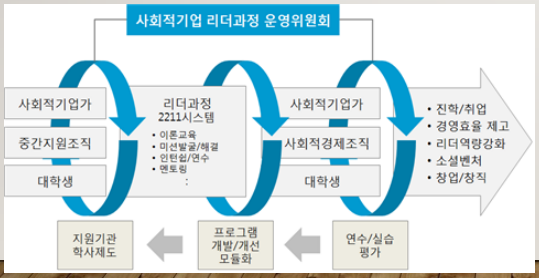
① 사회적경제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 기획, 수업계획서, 방대한 강의자료(컨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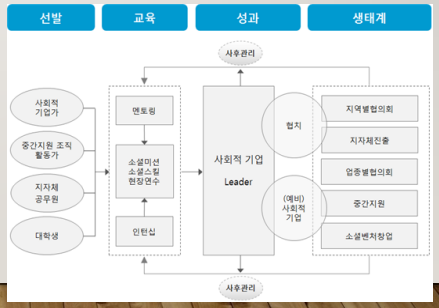
② 사회적경제 인턴십, 현장연수, 프로젝트 등, 현장수업 연계 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 명단 (일학습연계 생태계)

③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강사진 명단 – 데이터베이스 가능

4.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성과와 과제_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_주목 사례들

- 경남과기대 (2015년), “단기 아카데미 과정 한계를 극복하는 체계적인 교육 및 협력 제도화“ 목표로 과정을 설계 (왼쪽 그림)
- 사회적기업가(2)-중간활동가(2)-학생(1)- - 멘토(1) 시스템: 수료 후에도 중간지원조직의 지원과 멘토링 가능 시스템 (오른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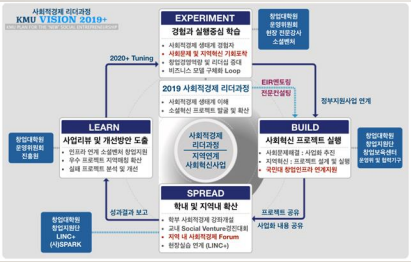




(출처) 경남과기대 2015년 결과보고서

4.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성과와 과제_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_주목 사례들

- 국민대(2018년) ,소셜벤처 창업을 목표. “확산”을 염두에 둔 과정 설계+앙트러프리너십에 관한 교육학적접근 방식 채택
- 창업지원단*LINC+ 사업단*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사업= 사회적경제 경진대회 유치, 창업기업(우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기관 연계 (학내 엔젤투자자 보유)
- 수료생 창



(출처) 국민대학교 2018년 결과보고서

4.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성과와 과제_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_주목 사례들

- 부산가톨릭대(2017년)는 과정 설계 전에 상세한 수요현황 조사: 사회적경제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333명 대상
- 인턴십과 창업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
- 수료생 중 인턴십 7명, 취업 1명, 창업 4명
- 비즈니스 모델 15개 개발
- 수강 사회적기업가 9명의 과정 이수 후 변화에 대한 상세한 정성적 기록 (경제적 성과 포함)

항목		결과	비고
참여의사	• 참여할 의사 있다	58%	•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개설에 많은 관심과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음
	• 생각해 보겠다	25%	
	• 참여할 의사 없다	17%	
	소계	100%	
개설교과목	• 사회적기업가정신	13%	• 사회적경제조직에서의 인턴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기업비즈니스모델과 사회적경제조직 현장연수에도 많은 기대를 가짐
	• 사회적기업개론	11%	
	•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	20%	
	• 인턴십	25%	
	• 국내외 사회적경제조직 현장연수	22%	
	•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및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9%	
	소계	100%	
수업시간대	• 18:00~21:00 주2회	55.2%	• 많은 응답자들이 주중 1800~2100에 주2회에 걸쳐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이 개설되기를 원함
	• 18:30~21:30 주2회	17.3%	
	• 19:00~22:00 주2회	25%	
	• 오전 시간대 주2회	1%	
	• 주말(토요일)	1.5%	
	소계	100%	
수강 이유	• 사회적경제조직 취업	8.6%	•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의 주된 수강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이며 호기심·네트워크 및 역량·스펙강화도 그 이유가 상당함
	•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32.7%	
	• 지자체 및 정부 사회적경제 담당자 취업	5.6%	
	• 일반기업 사회적공헌 활동 담당자 취업	3.1%	
	• 스펙과 역량강화	30.6%	
	• 주변인들 네트워크	19.4%	
	소계	100%	

(출처) 부산가톨릭대 2017년 결과보고서

4.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성과와 과제_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_주목 사례들

- 성공회대학교(2020)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역량 제고" 목표
- 팀학습방법론 적용 현장문제해결 세미나: 디자인씽킹+액션러닝+팀아카데미(Tiimi Akatemia)
- 팀 빌딩 중시, 8개 팀에 5명의 코치 배치
- 개인별 학습계약서, 팀학습계약서 제출
- 8개 팀 세미나 성과 도출
-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대면 병행 : 강의실 2곳 활용(강사 대면강의와 동시 옆 강의실에서 동시 시청)

(출처) 성공회대학교 2020년 결과보고서

4.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성과와 과제_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_과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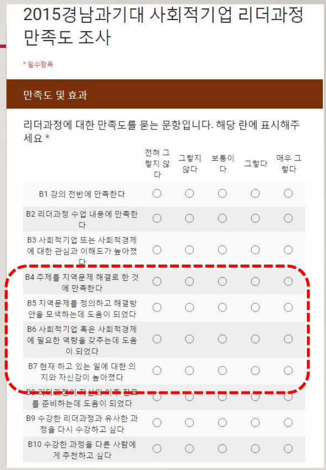
- 공통 교재의 부재: 방대한 강의자료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재로서 (가)『사회적경제론』 개론서 미발간 상태
- 방대한 강의자료의 사장 (死蔵) : 대학마다 특성 있는 수업 콘텐츠들이 공유되지 못하고 공공기관에 묵혀 두고 있음 (공공의 마중물 역할 → 콘텐츠 공유, 공공화로 가야 질적 변용, 융합효과도 가능)
- 교육성과의 공유 부족: 성과공유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

4. 사회적경제 선도대학_성과와 과제_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_과제 ②

- 성인학습자 특성 반영한 설계 필요: 사회인 리더과정
- 2018년부터 사회인 리더과정과 학부과정이 분리됨. 적절한 대응
- 리더과정: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설계 (학습단절기간, 시간 배정, 기본역량 진단)
- 일 학습 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 무리한 설계(학습, 경험의 집중 공급)보다 참여하기 쉬운 환경 조성 필요 (조직 협력과 업무 조정, 연간 이수 시간 조정, 동영상 탑재, 카운셀링 등)
- 사후관리 : 지역사회 학습조직으로서의 가능성 (안티고니쉬운동, 몬드라곤 창업 시기, 스웨덴 ABF, 홍성군 일소공도) , 사회적경제조직 – 중간지원조직 – 대학– 공공기관 참가자들을 의식적으로 모집–수료 후 다양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반복, 확산할 수 있는 거점과 문화로 작동

4. 사회적경제 선도대학_성과와 과제_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_과제 ③

- 주요 성과지표,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기재가 모두 달라서 공유와 확산을 방해함. 최소한의 통일은 필요 (예: 선도대학 모집 시 지원자 수 중요, 예비자원으로서)
- 수강생 만족도 조사: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외 과정을 통한 **역량 변화(효과성)**에 주목한 조사는 드물었음
- 공모기관의 가이드라인 수준: “1년 1회 모집, 학기당 모집,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편성, 인턴십과 프로젝트 필수” 등을 공모기관이 결정해야 하는가? 공모기관의 가이드라인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수행대학의 자율성 강화 분야와 공통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논의해 보아야



(출처) 경남과기대 2015년 결과보고서

4. 사회적경제 선도대학_성과와 과제_사회인 리더과정을 중심으로_제안

- **(성과공유회 개최 정례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성과공유회를 정례화. 커리큘럼 등 개방
- **(주요 성과지표 기반 결과보고서)** 주요 정량/정성 지표 중심의 결과보고서 양식 개발
- **(선도대학 가이드라인 설명회)** 운영 사업 공모 전에 설명 및 질의응답 기회 제공, 현장의 필요와 기획과 매칭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정합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나열식 항목 삭제)
- **(기본교재 개발 지원)** 기본교재로 사용할 교재 발간, 공통사용
- **(선도대학 결과보고서의 데이터화)** 강사진, 주요 데이터를 DB화
- 신규 모델 개척 선도대학에 가점: 인구과소지역에서 캠프형으로 2달 과정 운영, 미개척분야 기획(사회적경제 골목상인대학) 등
- 정규 학부, 대학원 과정 개설 조건을 완화: 현 시기는 대학의 급격한 전환기. 적합한 목표인지 검토

(마침)

4. 이화여대 사회적경제 교육현황 및 사회적경제 교육의 발전 방향

조상미(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대 사회적경제 교육현황 및 사회적경제 교육의 발전 방향

2021. 7. 5 이화여대 조상미

1.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 대학원 현황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 4섹터로서 공공, 민간, 시민사회 부분이 혼합된 영역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공익 달성을 목표로 하며 시장중심적인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대안 모델로 주목을 받아온 분야임.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추구하는 비전과 합치되어, 사회적경제 협동과정은 기업가 정신을 갖춘 동시에 사회적인 미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현장연계형, 융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공을 개설하였음. 현재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가치를 중시하는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학원 학위 취득에 대한 관심사는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대내외 변화와 궤를 함께 하여, 2017년 2학기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을 신설하였음. 이화여대 15개 학과(건축학, 경영학, 경제학,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법학, 북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산업디자인학, 소비자학, 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 영상디자인학, 융합보건학, 특수교육학, 행정학)가 연계하여 협동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융합형 교과목 제공, 국내외 해외탐방, 창업아카데미, '이화 사회적경제 리뷰' 발간 및 Social Impact Forum 개최 등을 통해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오고 있음.

사회적경제 협동과정은 교내 특성화 사업과 선도융합사업에 선정되어 학문분야로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왔음. 또한 2019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에 선정되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학부수준을 운영한 바 있음. 이러한 대내외 사업과 연구를 발판으로 본 협동과정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모범적인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대외적인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Social Impact Forum을 개최하고 Social Impact Review를 발간하는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2017년 2학기 신설한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의 개요>

1. 학과현황

1) 15개 학과 25명의 겸임교수로 구성된 융합형 학과로 신설시부터 박사과정을 설립하여, 현장가들이 acting researcher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초점을 가지고 있음.

2)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은 현재 70여명의 대학원생이 있으며, 년간 약 15-20여명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음.

3) 특히 전공 신설시에는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입학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보다 심화된 학문적 관심과 대안적 진로 탐색을 추구하는 학부 졸업 직후 학생들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4) 협동과정 참여 교수 수는 아래와 같이 교내 연계 전공과 교과목, 참여교수가 증가하여 옴.

2017년 9월 / 9개 학과 연계 / 46개 교과목 / 14명의 교수

2018년 4월 /9개 학과 연계 / 48개 교과목 /14명의 교수

2019년 11월 / 14개 학과 연계 / 58개 교과목 /24명의 교수 (겸임교수 2명 포함)

2020년 6월 / 15개 학과 연계 / 60개 교과목 /24명의 교수 (겸임교수 2명 포함)

2020년 11월/ 15개 학과 연계/ 60개 교과목/ 25명의 교수 (겸임교수 2명, 초빙교수 1명 포함)

5) 지난 4년간 석사 5명, 박사 2명을 배출하였으며 박사들은 이화여대의 강사 및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석사생들은 창업, 유학, 졸업생은 사회적경제 현장으로 모두 진출하였음.

2. 교내 특성화(미래역량육성사업)사업에 선정되, 대중과 연계하는 교육과 연구확산을 위해 지속해옴.신설한 협동과정으로서 본교의 인지도가 높고 유망전공으로 인정받고 있음.

1) 창업 아카데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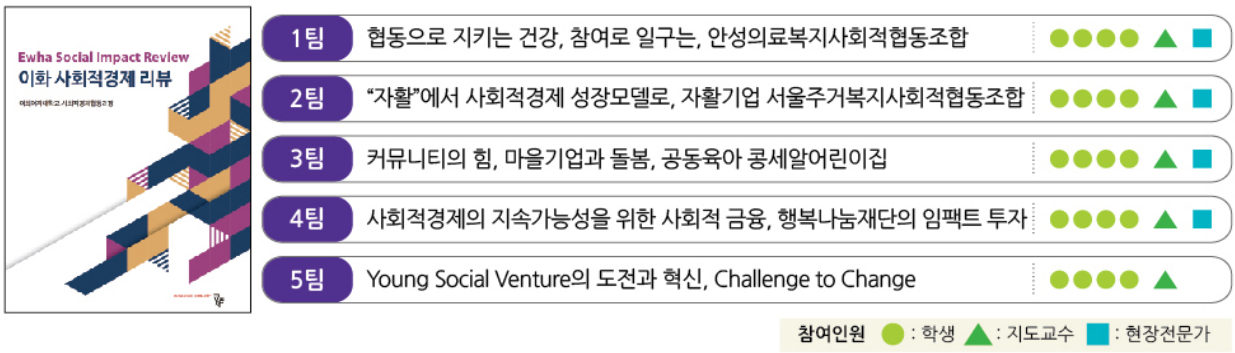
2) Social Impact Forum을 개최(총 3회 개최, 총 5, 500여명 참석). 특히 2021년 2월 5일 개최된 social impact 포럼은 유튜브로 진행되 학계, 현장 전문가, 대중등 5,000여명 이상 참석하여 social impact를 확대함.

3) 1, 2호 Social Impact Review를 발간하는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4) 국내외 현장탐방 실시

- 스페인· 프랑스 해외탐방(2019년 6월 30일-7월 7일): 스페인 몬드라곤 및 프랑스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방문하여 그 운영방식과 현황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회적경제의 혁신성과 창조성을 개발하려는 방안을 모색
- 1차 국내탐방 충북괴산(2018년 8월 10일 ~ 8월 11일): 충북 괴산 자연드림 파크 방문 및 괴산지역 서점 운영자 및 문화인 만남을 통해 사회적경제생태계 간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
- 2차 국내탐방 전북 완주 (2019년 2월 15일 ~ 2월 16일): 전북 완주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둘러보고 현지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 견학 및 예술인, 지역주민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짐.
- 3차 국내탐방 강원도 원주(2019년 8월 9일 ~ 8월 10일): 강원도 원주 지역의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시설 및 기관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적용사례를 모색하여 사회적경제협동과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예시) Social Impact Review 제 1권의 내용



「이화 사회적경제 리뷰」 1권 내용

3. 2019년 사회적경제리더과정 운영(학부수준)

- 군산대 이호 교수님 발표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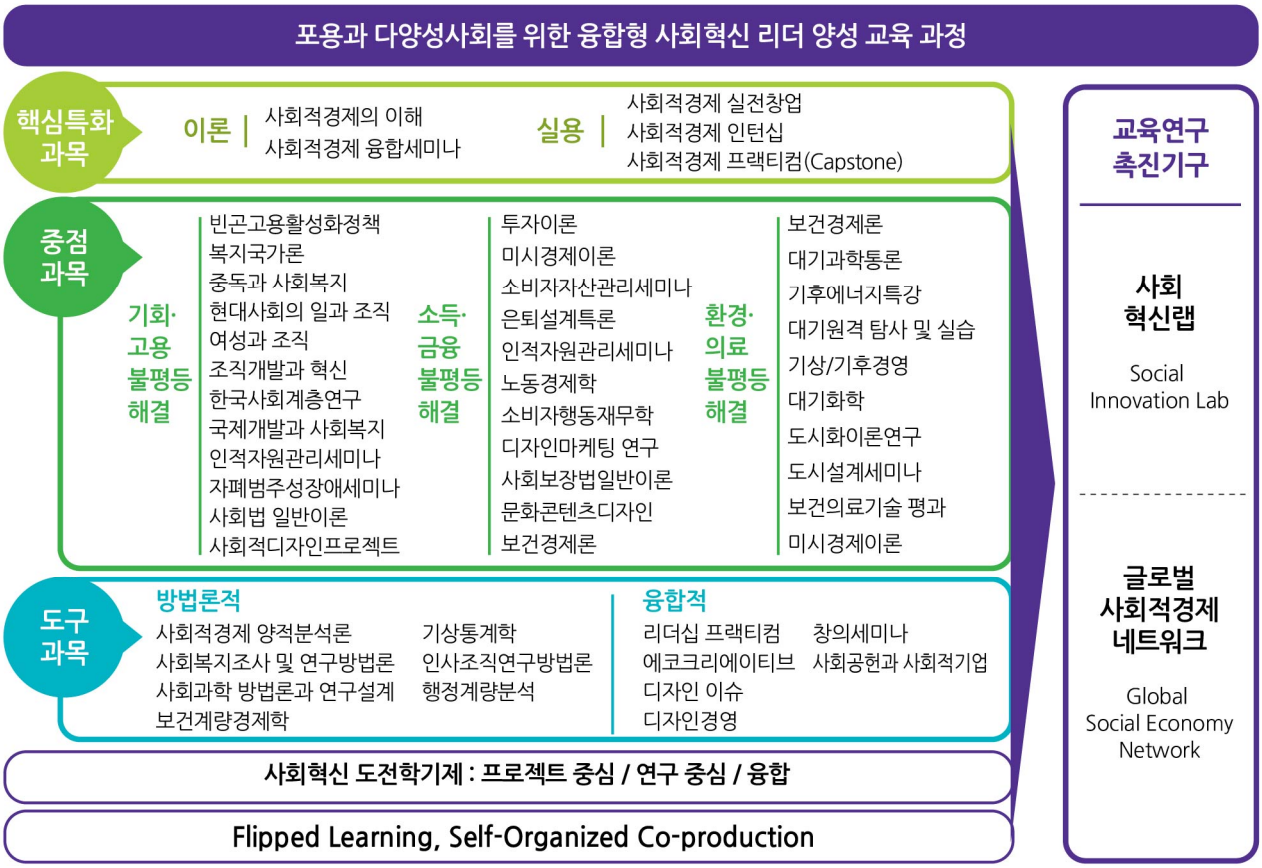
4. 교내 이화선도융합연구 선정 - 9명의 다학제적 교수진이 참여해 융합연구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1) BK 지원

2)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인식연구>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수행 중임.

-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BK4단계 사업을 사업단 수준에서 지원하면서 학과의 비전을 확장하여 수립하고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또한 학생들의 관심사와 역량에 따른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한 바 있음 (아래 그림 참조).



2. 도전과제

사회적경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향후 그 중요성이 확대될 분야임. 예를 들면 UN이 설정한 17개의 지속적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도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실현해야 할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기조 아래 글로벌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기업의 주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예, 애플, 아마존, 알파벳, 스타벅스, 마이크로 소프트 등은 혁신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의 비중을 늘리고 있음), 국내에서도 선진기업이 사회적경제 가치를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개편 중 (예, SK 그룹, 포스코,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이어서 사회적경제 협동과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또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확장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배경의 확장이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연구 수요가

증대될 전망.

따라서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한 학문적 관심도가 크며 이에 따라 대학원 학위의 수요가 꾸준할 전망임. 사회적경제 협동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과 가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갈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이미 국내외 산업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불평등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학제간 융합방식의 문제해결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 협동과정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 분야로 판단됨.

1) 대학교육- 사회적경제교육 협의체 필요: 현재의 포럼과 노력들이 매우 고무적이고 중요함.

2) 사회적경제의 학문적 Identity 정립

본교: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고유 교과목을 확대하고 대학원생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연구중심 대학의 핵심전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참고>

- 2021년 현재 본교 대학원생들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수는 총 10여편
- 연구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 건수는 10건임.
- 국내 학회 발표 및 토론 5건
- 국제학회 발표 5건

본 협동과정이 지속적인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배출하게 될 석사 및 박사 졸업생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본 전공은 박사과정의 경우 대학원 차원에서 요구하는 등재학술지 논문 1편의 필수 졸업 요건 외에 추가 1편을 재학기간 동안에 발표하게 하는 등 학생들 연구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꾀하고 있음.

2) 본교 - 융합연구 수행 및 확산

- 다학제간 융합전공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 지도교수제 강화 필요. 현재 논문심사위원회를 다학제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화선도융합연구를 통해 교수진간 융합연구를 도모하고 있음.

-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한달에 1회 학모임 개최: 학생들간의 공동연구 발판 마련

- 학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밀착형 학사지도 수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면담, 주기적인 교수학생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3) 본교 - 전임교원 및 행정 전담인력 필요.

4) 대중교육 확대 필요

사회적경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경제 이론교육과 실제적인 지역사회 참여 및 나눔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접할 수 있도록 초중고 기본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과 연계하여 미래사회의 인재가 가져야 할 소양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임. 동시에,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와 그들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

- 대학의 교양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실제로 확산되고 연계되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학교, 기업, 시민단체 등 여러 주체가 사회적 가치 전달체계에 참여해야 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 리더십 교육, 조직에 대한 교육 등 기초교육과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중간지원조직 및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정립이 필요함.

본 토론자가 수행한 <서울 시민의 사회적경제 인식연구> 에서는 10-20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고, 전공에 따라 사회적경제 인식이 확연한 차이가 있었음(인문·사회대 높음, 공대·의대 낮음), 서북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음.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려면, 현재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물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고, 본인의 일상생활의 애로점(예:돌봄) 및 사회문제해결에 사회적경제가 기여하고 있다는 체감도가 중요함.

- 따라서 중간지원조직들과의 연계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역에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연계가 필요함.. 예를 들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와의 연계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한다면, 이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잡힐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중간지원조직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및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간지원조직들은 균형있는 사회적경제 공유 및 맞춤형 정책지원방안,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6) 대학의 사회책임을 수행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학부 및 교양교육 확대가 필요함..

-학력이 높을수록 특히 대학원생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볼 때, 대학원 사회적경제 교육의 효과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공에 따른 사회적경제 인식의 차이를 볼 때, 사회적경제 관련 학부수준 교육과 교양교육 확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대학이 지속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이 매우 중요함. 예를 들어 교내에서는 학부 교양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에 비학위 과정 학부수준의 교육을 지속해 나간다면,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들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이나 <시민대학>에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관련 교육등을 수행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대학 평생교육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

- 또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의 중요성을 볼 때,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한 다양한 기부 및 사회적경제 조직 및 관련 지역에서의 봉사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하다.

7) 교육과 연구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초중고, 대학의 교육이 병행되어,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실제로 확산되고 연계되는 collective impact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를 위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적 가치 전달체계에 참여해야 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 리더십 교육, 조직에 대한 교육 등 기초교육과 맞춤형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사회적경제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5. 혁신적 사회적경제를 위한 대학교육프로그램 실천의 성과와 한계

장종익(한신대학교)

2020. 11. 24

혁신적 사회적경제를 위한 대학교육프로그램 실천의 성과와 한계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대학원 사회적경영학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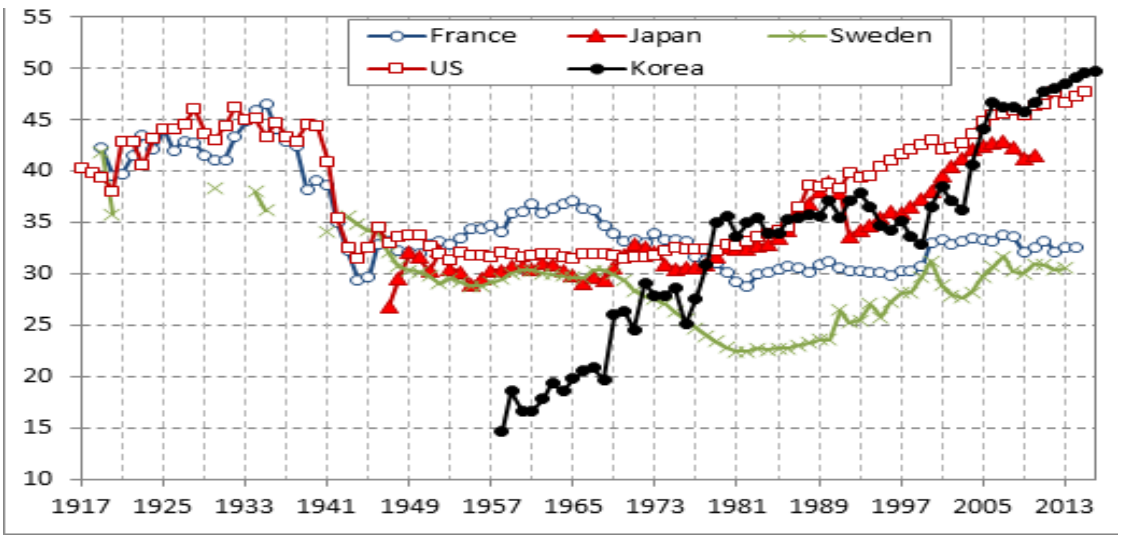
- 무엇을 연구하고 교육할 것인가? 경제와 기업의 재구성
- 사회적경제 교육의 특수성과 혁신의 필요성
- 대학의 역할과 한신대 시도 및 성찰
- 사회혁신 전문대학원대학교 구상

사회적경제가 최근에 다시 주목받는 배경

- 글로벌화/디지털화/네트워크 경제화/플랫폼경제화로 인한 승자독식과 부의 양극화
- 자산의 양극화와 주거의 불안정
- 일자리의 양극화와 다수의 영세사업체의 온존
- 가족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의 전환과시장의 실패
- 사회적 신뢰의 추락과 공동체의 쇠퇴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기업)의 한계 증가

상위 10%의 소득비중 국제비교



출처: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https://sites.google.com/site/hminki00/

주택소유의 집중도 증가

- 주택자가보유율: 53.2%('95) → 55.9%('17): ▲2.7%
- 주택보급률: 73.9%('95) → 103.2%('17): ▲29.3%

(국토교통부)

- 주택보유자 중 상위 1%(14만명)의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 3.2채('07) → 6.7채('17) (경실련, '19)

- 공공임대/사회주택비중 5% 수준, 네덜란드 35%, 프랑스 18%, 영국 17%, 덴마크 19%

- **부영 임대아파트 1조6천억 폭리?...전국 100여건 소송(연합뉴스,** *2016-0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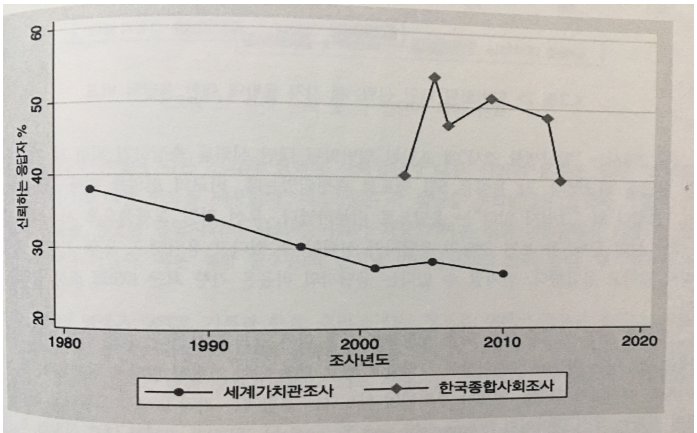
영세/소기업 종사자의 높은 비중

	비임금 근로자	1-4명	5-9명	10-49명	50-300명	300명 이상	합계
1995	7,515 (36.8)	4,166 (20.4)	1,322 (6.5)	3,012 (14.8)	2,622 (12.8)	2,511 (12.3)	20,414 (100.0)
	(63.7)						
2010	6,858 (28.8)	5,057 (23.4)	1,841 (10.4)	4,358 (18.3)	3,818 (16.0)	2,556 (10.7)	23,829 (100.0)
	(62.8)						
2015	6,829 (26.1)	5,602 (21.4)	2,770 (10.6)	5,118 (19.6)	4,425 (16.9)	2,973 (11.3)	26,141 (100.0)
	(58.1)						

오늘날 대학의 경제학과 경영학은 58%의 취업자가 일하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종사자에게 어떠한 지식을 제공하는가? (글로벌기업/대기업의 인사조직관리, 전략경영, 마케팅에 초점)

6

사회적 신뢰의 추락과 공동체의 쇠퇴



<그림 1> 세계가치관조사와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나타난 일반화된 대인 신뢰의 추세

출처: 임동균(2018)

직장・마을・가족에서의 community의 쇠퇴와 파편화된 삶의 양식의 심화:

- 이직율의 증가
- 기업내 및 기업간 노동시장의 분절적 이중구조화와 고통의 전가
- 노인돌봄/영유아돌봄서비스의 시장화
- 1인 가구의 지배화

➡ 공동체(community)지수 40개국 중 40 위 (2020 년, OECD, Better Life Index),

시장(private approach) 혹은 정부(public approach)의 전통적 이분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의 증가

- 보육 및 아동돌봄문제: 유치원사태
- 노인돌봄문제
- 주택문제
- 자영업문제

➡ 경제와 기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

경제와 기업에 관한 사회적경제의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

1. 모든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해야 하는가?

2. 기업은 반드시 자본가(투자자)가 소유해야 하는가?

3. 모든 기업이 서로 경쟁해야 소비자 후생과 사회후생이 증진되는가?

4. 민자유치만이 공공이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인가?

경제와 기업에 관한 사회적경제의 재구성

범주	전통적 통념/논리	사회적경제 재구성 논리
기업의 목적	이윤(주주가치) 극대화	조합원의 공동 편익, 공동체 발전, 사회가치 추구
기업의 소유자	자본가(지배주주)	일하는 사람, 소비자, 서비스수혜자, 소기업가, 다중이해관계자소유구조
시장에서의 기업간의 관계	기업간 경쟁이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고 경제의 성장을 촉진.	소상공인/소기업간에는 과다한 경쟁보다는 협력/연대가 사회경제를 발전시킴.
금융의 역할	수익과 리스크의 두 축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증권화를 통해 최적의 자원배분을 촉진.	금융의 가치지향성을 강조하며, 집합적 자본의 힘을 통해 사회목적 달성 활동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시장・공공・공동체의 협업을 촉진.
정부의 역할	경제정책(공공조달)과 복지정책(이전지출), 노동정책, 환경정책, 기술정책의 분리	사회책임조달을 통한 각 정책의 종합적 구현/시너지 시장개입 및 규제정책의 파트너로서 사회적경제 설정 및 육성 정책
공공/기업/시민조직간의 관계	서로 독립적 관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섹터간 다양한 협력이 필요: 사회적주택, 사회임팩트채권(SIB)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

- 사회적경제섹터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의 밑바탕에는

i)인간 즉 경제적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역량의 함양,

ii)인간들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와 상호성, 그리고

iii)사람들 사이의 일반화된 신뢰 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에 부응하는 사업방식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경제는 iv)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과 고용안정, 그리고 v)시장의 공정성 및 기업민주주의의 제고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음.

왜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부르는가?

- 협동조합의 궁극적 목적: 인간에 대한 철학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협동조합은 개인의 발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Macpherson, 1996)

"협동조합은 그 궁극적 목표를 인류의 물질적·도덕적·시민적 조건의 진보에 둔다." "조합원은 모든 형태의 상호활동의 출발점이며 협동조합이 행동을 취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존재이다." "모든 협동조합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 용기와 지적 창조성, 전문성,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레가 헌장, 1995)

사회적경제 인재상

- "교육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사업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이 아니다. 교육은 복잡하지만 풍부한 협동조합 사상과 사업 활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이다."(국제협동조합연맹)

- "인간에 의해서 채택된 사상과 개념의 복잡성을 교육받고 이해하는 것이 대중의 발전과 진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 (호세 마리아 신부)

- 2018년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에서 활동가 7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인재상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상위 6가지의 핵심 가치와 핵심역량(이봉희, 2020)
- 핵심가치는 협동, 공동체, 연대, 사람중심, 공공성, 민주성,
-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네트워킹, 민주적 리더십, 기획·추진력, 갈등관리

대학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수행 시의 딜레마

- 사회적경제는 경제의 한 영역일뿐만 아니라 기존 자본주의적경제의 대안적 부문이라는 점에서 기존 경제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수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교육의 내용 및 방법상 기존 자본주의적경제의 원리를 주로 교육하는 내용에 동형화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적경제는 기업의 목적, 기업의 소유권,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관계,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섹터와 민간섹터의 관계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경제의 발전이 사회의 성숙도를 제고시키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되는 새로운 사고와 실천이 요구되는 부문임.

사회와 경제가 분리되고, 가치와 경영이 분리된 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

- 협동조합운동사 vs. 인적자원관리론
- 조합원 참여/사회적 비즈니스 vs. 마케팅론
- 사회적경제의 철학 vs. 재무.투자관리론
- 사회적경제교육도 지식의 전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과 반성.

Why & How에 관한 다양한 실천의 성공/실패 사례에 관한 미시적 분석과 지식 공유 플랫폼/네트워크

-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실천과 확산,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i) 국내외 크고 작은 실천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그리고 그 성공 요인과 기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ii) 지식을 축적하여 공유하는 플랫폼과 iii)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리더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는 메카니즘의 구축이 필수적.
-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지식공유 플랫폼과 경험공유/멘토링 메카니즘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유할 지식의 체계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험공유/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

➡ 대학이 이 측면에 기여할 역할이 있을 것

대학이 집중할 필요가 있는 협동조합 교육 내용: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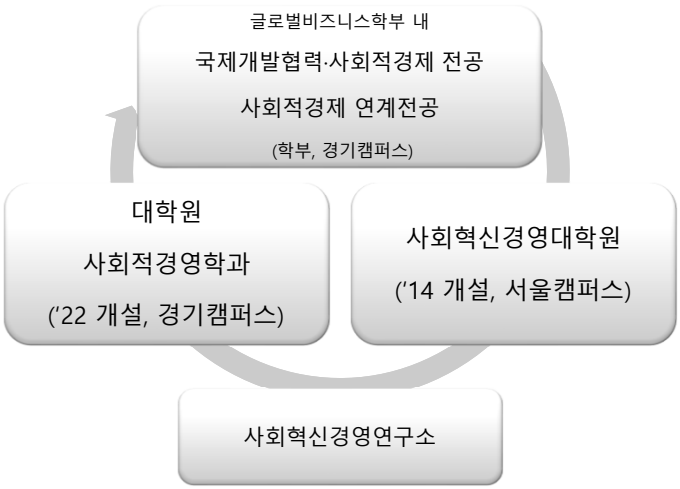
✓왜 이 시대에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가?
✓협동조합은 만병통치약인가?: 협동조합을 통하여 무엇을 해결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가?

✓협동조합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왜 노동자협동조합은 제한된 지역이나 산업분야에서만 발전해오고 있는가?
✓왜 이탈리아나 캐나다 퀘벡주 등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협동조합이 더 잘 발전하고 있는가?

✓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주식회사/비영리기업에 비하여 협동조합의 상대적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협동조합의 상대적 단점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

한신대 사례

학부-대학원-연구소-외부과정 상호연계



대학원: 이론-현장 조사-분석-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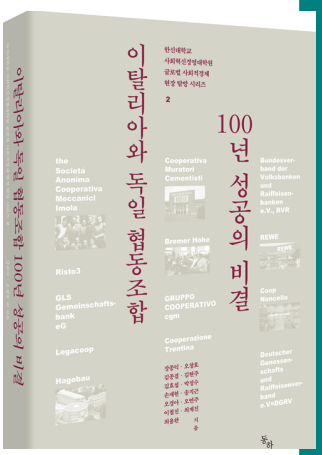
- 비즈니스모델로 본 영국의 사회적기업(2015): 2명의 교수와 9명의 대학원생의 공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관한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와 분석능력을 지닌 리더 양성

0-19

대학원: 이론-현장 조사-분석-공유 II

-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2019): '16-'18 2명의 교수와 11명의 대학원생의 공저



0-20

학부 프로그램

- 교과목 개설(2011년부터 사회적기업경영론 개설, 협동조합경영론, NGO경영론('12), 사례로 배우는 사회적경제(교양, '13), 경영조직과 사회혁신('14), "사회적경제경영입문(전공, '16), 사회적경제정책론('18), 사회적경제현장실습('18)
- 사회적경제경영 연계 전공 개설 ('16):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경제학과, 재활학과, 중국학과 등 참여
-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탐방, 조사 수행
- 국내 인턴십: 아이쿱생협, 해피브릿지 등 하계 및 동계 인턴십
- 해외 인턴십: 영국 사회적기업 하계 인턴십 (13명, '15)

0-21

사회적경제 교육방식의 시도와 성찰: 사회적경제경영입문

- 동영상 시청,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고, ' 함께 일하는 경험'을 체험하도록 설계

- 공동 노동의 경험을 통하여 협동의 어려움과 장점을 체험하도록 유도: 사회적경제 사례 조사 팀프로젝트, 발표, 동료 평가(horizontal evaluation), 개인 리포트, 사례 비교 분석을 위한 토론을 통하여 책에서 배운 이론의 확인과 한계의 체감

0-22

사회혁신 전문대학원대학교 구상 (노협+후원자조합원)

△ 기존 대학들이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단절화·부차화·동형화되는 경향

△ 석사 프로그램: 문제 해결형 융복합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 및 혁신적 팀기업가 전공: 노협, 플랫폼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에 초점
- 소기업/소상공인 협업경영전문가 전공
- 도시재생 및 산업혁신디자인 전문가 전공
- 코뮤니티 발전, 자치행정, 민관소셜파트너십 전문가 전공: ODA 전문가 포함

* 주요 타겟 수요자: 기존 사경 종사자+자본주의적기업 및 그 생태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

△ 융복합 박사프로그램: 경제, 경영, 자치행정, 금융, 사회, 심리학, 인문학, 건축, 공간혁신, 사회서비스, 디지털 기술 등

△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에서 필수적인 일이지만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업종의 협동조합 구성원을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통한 삶의 주인으로 서기 지원: 택시운전자대학, 요양보호사대학, 소상공인대학 등

0-23

사람과 코뮤니티를 다시 경제 속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사회적경제 대학교육포럼 토론문

강승호(강릉원주대학교)

사회적경제 대학교육포럼 토론문

강 승 호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2019년도 사회인 대상 리더과정을 운영한 강릉원주대학교 강승호입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2019년도 운영한 사회적경제 교육 경험과 한계점을 먼저 간략히 소개하고, 저희가 느꼈던 한계점과 함께 포럼 발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만 기업연혁이 대부분 길지 않아, 대부분 창업보육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본교는 창업지원본부(창업보육센터)가 주관하여 강릉 지역 사회적경제 대표, 운영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완료 이후 대부분의 수료기업(인)들은 대학의 LINC+사업단과 연계하여 산학협력사업(연구개발(R&D), 지역사회혁신프로젝트 등)으로 연계하여 활동하여, 지역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학원에 정규 학과(원주캠퍼스) 개설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업 이후에도 아직은 대학교 거교적 차원의 호응을 얻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7개 대학의 학부 사례를 분석하여 주신 이호 군산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자들의 니즈와 달리 학부학생들의 니즈는 미래 일자리와 관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에서 초점을 두는 글로벌 이슈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 방안 등은 지방대학에서는 사실상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전공이 국제개발 및 통상학이다 보니 콘텐츠는 연관되지만 실제 체험적으로 교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사회복지학 등의 전공학생들도 사회적경제를 마치 소규모기업 창업으로 이해하고 기피합니다. 그들에게는 자격증이 우선이고 준공무원적인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지역문제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북과 같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의 환경적 차이 영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호 교수님이 제 고민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발제자 김교수님뿐만 아니라 포럼 참여자 전체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형미 교수님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원한 본 교육사업은 2013년 이후 9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여 대학이 9년간 31개인데, 이 중에서 3회 운영교(부산대, 한양대, 성공회대)와 2회 운영교(우석대, 대구가톨릭대, 가톨릭대, 서강대)등 중복을 고려하면 총 참여 대학은 18개 대학 밖에 안됩니다. 물론 사업이 선도대학을 집중한다는 측면의 목적도 있을 것이지만, 확산 측면에서 본다면 9년동안 18개 대학이면 평균 2개 대학이라는 것이라서 확산의 숫자면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대학의 지역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성균관대, 중앙대, 서강대, 한양대, 한신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7개, 부산경남(경남과기대, 부산대, 부산가톨릭 3개), 강원대경권(강릉원주대, 상지대, 대구가톨릭대 3개) 충청(충북대, 한남대 2개), 전라(광주대, 우석대, 전주대 3개). 분포로 볼 때 수도권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지역대학들의 참여 확산이 더 필요하며,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금번 7월 2일 사회적경제 박람회(광주)에서 31개 대학교 LINC+사업단 중심의 사회적경제대학협의회가 (사)사회적경제산학협력학회를 창립하였는데, 향후 이와 연계된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7. 사회적경제선도대학의 역할과 지방대학생 사회적경제계의 지역인재로 양성하기

전방연(나사렛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사회적경제선도대학의 역할과
지방대학생 사회적경제계의 지역인재로 양성하기

나사렛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전방연

사회적경제선도대학의 역할이 교육하는 대상에 따라 사회인을 사회적경제의 리더로 양성하는 것과 학부생을 사회적경제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아직 사회적경제선도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을 사회적경제계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로써 그동안의 관련 사업진행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을 이 포럼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에서 진단한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된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분야 일자리창출사업을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면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 지역의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불안정 고용(33.3%)', '부족한 일자리 수(22.7%),' '지역인재의 수도권 이탈(1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 기업,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경제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분기별로 역량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에 정착을 촉진하며 2년간 근무하고 3년차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청년활동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보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 일정 부분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인터뷰할 때 마다 지역에 이렇게 귀한 청년이 있다는 것에 감탄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역에 머무르기로 한 청년이 일자리를 찾다가 발견하게 되어 지원하는 양

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지원한 청년활동가는 근속기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경우 사회적경제선도대학의 사업을 이수한 청년 중에서 선발을 한다거나 청년활동가로 선발된 청년은 사회적경제선도대학의 일정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진행하는 청년활동가 교육은 대상에 따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 부분 다르며 각기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청년활동가가 요구하는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분기별 교육으로는 사회적경제관련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교 졸업생이 청년활동가로 취업한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이 전공한 분야와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분야가 연관성이 있을 때 매우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만 결혼과 육아 등의 문제가 급여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1인에게 최대 2년간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분야에서 일하고 싶어도 채용된 해당 기업의 매출구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사회적경제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이 요구됩니다.

요약하면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들 중에 핵심 청년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을 찾고 이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기능하며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주역이 되는 동시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선도대학 사업은 연차별 사업이 아니라 일정기간 지속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10여년 전부터 정부는 대학생의 창업지원을 독려해왔고 정부 지원의 흐름을 타 공학계열이 우세한 많은 대학들이 창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창업교육 및 보육에 힘써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학과의 90%이상이 인문사회계열로 구성되어 창업교육 및 보육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 대학은 대학평가 때문에 지난 2018년 2월에 창업교육센터를 취창업학생처에 설치하였고 매우 열악한 여건속에서 창업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도했던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가진 가치와 우리 대학이 가진 가치가 상당 부분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20년 이상 재활특성화 대학으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됨은 물론 작은 캠퍼스 안에 5,000여명의 재학생과 400여명의 장애학우들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년간 구성원이 함께 공존하고 나눈다는 것을 기본 인성으로 함양하며 관련 지식과 태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기본 인성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돋보였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마일리지를 쌓는 것 표면적 목적 이상으로 자신들의 열정과 관심을 쏟으며 참여하였고 그들이 도출한 해결방안이 실행되기에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면서 지역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성장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생들을 사회적경제분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열정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 추진을 하여 현재 4년째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인 “충남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운영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그간 약100여명의 청년활동가 발굴 육성하였으며 “충남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ICT분야)” 를 위탁받아 ICT분야의 3개 분과(지역문제해결분과, IOT비즈니스분과, 콘텐츠비즈니스분과)를 개설하여 총60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천안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 스마트헬스케어컨설팅창업가 양성과정 및 지역기반 소셜창업지원사업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 선정되어 국내 유일한 재활특화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이커교육과 그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등의 개선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고 맞춤식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4년째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진로에서 중요한 선택지로 지역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분야로 창업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 중의 하나로 현재에도 충남지역의 사회적경제분야 중간조직, 당사자 조직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주요 조직의 대표들과 분기

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서로 협조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사나 교육을 공동 진행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각 프로그램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성하는 모든 교육 커리큘럼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자문을 통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경제분야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대학에서 제공하고 교육에 참여한 재직자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 있는 우리 재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은 졸업 필수요건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사렛대학교는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졸업 필수 요건으로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이때 각 지역의 협조는 각 광역시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전교생이 필수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도출되고 때에 따라서는 해결방안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학계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지원이 강세이지만 추후 인문, 문화, 사회, 예술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창업지원이 사회적으로도 요구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분야의 확장과 선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참석 기관 및 대학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학생 및 청년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 사회적경제 대학 교육 현황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관 협력 사례(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박세현(대구대학교)

사회적경제 대학 교육 현황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관 협력 사례
-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박 세 현
(대구대학교)

1. 현황

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비학위과정인 사회적경제 리더과정(現 선도대학)을 운영하였거나, 학위과정(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대구가톨릭대학이 유일함.

나. 대구대학교는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설치하고, 2013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2017년부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광역지원기관) 운영기관 수탁 등을 통해 일반시민, 예비창업자, 기업가, 중간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다. 영남대학교 기업가센터는 2020년에 사회적경제 예비창업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사회적기업가 Nano-Degree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LMS 시스템을 통해 Open Course로 운영중.

라. 안동대학교 공동체문화연구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조명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

마. 대구·경북 지역 대학은 최근 들어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일어나고 있으나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학위·비학위과정의 개설과 다양성, 참여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등에서도 부족함. 앞서 언급한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부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같은 기초 수준의 교과목을 편성해 놓은 상황임.

바. 2021. 7. 2.(목) 전국 31개 대학을 회원교로 정식 출범한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에 대구·경북 지역 대구대, 영남대, 경일대, 계명대, 안동대 등 5개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전보다는 대학 차원에서 더 활발한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 2019년 대구대, 인제대, 전북대, 한남대, 호서대 등 5개 대학 LINC+사업단을 중심으로 시작

No	대학	권역	리더과정/선도대학	관련 학과 개설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	육성사업	지원기관
				학부	석사 이상			
1	경일대학교	경북				o		
2	계명대학교	대구				o		
3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	o		o			
4	대구대학교	경북				o	o	o

No	대학	권역	리더과정/ 선도대학	관련 학과 개설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	육성 사업	지원 기관
				학부	석사 이상			
5	안동대학교	경북				o		
6	영남대학교	경북				o		

* 2021. 6. 기준

2. 문제발견

가. 경북의 사회적기업 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있어서도 지리적으로 동일 광역에 속한 광역에서도 가장 많음.

나.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매년 대폭 증가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수와 종사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유입되는 인재를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의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위 인재 수급의 불균형 상태에 있음.

다. 대학의 역할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대학 차원의 사회적경제 교육의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음.

첫째,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 수요는 있으나 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에는 그 수요의 규모가 크지 않음. 2020년 9월 기준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는 1만명 수준이고, 만 39세 미만의 청년 고용인원 비중도 32.7%(대략 3,000명 추산)에 불과하여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집중교육과정(비학위과정)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참여인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구·경북에서는 광역 또는 시군별 중간지원기관에서 일반시민, 예비창업자, 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교육과정(20시간 이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내용도 기초 또는 초급 단계의 교육과정이 주를 이루어지다보니 매년 유사하거나 동일한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둘째,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기관의 근로여건이 종사자가 사회적경제 교육(학위, 비학위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할 만큼 동기부여가 되지 못함. 2020년 경북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은 월 192만원(연봉 2,300만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 하위 30%에 속함. 기업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비율도 27.7%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학습동기를 이끌어내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셋째, 사회적경제 분야 교육 및 연구지원이 부족하고, 연구가치에 대한 평가체계도 미비하기 때문에 교수자의 참여가 적음. 사회적경제가 사회적으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학문으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현재는 대구·경북 광역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현장탐방비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 및 연구지원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자의 참여를 기대하기란 어려움 상황임.

3. 제언(사례를 중심으로)

앞에서 보았듯이 지역은 교육수요, 근로여건, 교육 및 연구지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인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첫째, 지역의 대학·기관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작·제공

(사례 1). <u>창업자</u> 교육: 대구·경북 소셜벤처 지원 네트워크 공동교육 운영

(활동내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경제진흥원, 대구시사회적기업협의회), 소셜캠퍼스 온 운영기관(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내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기관이 창업자를 위한 공동교육 과정 운영

(협업효과) 각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수합하여 단일기관 운영시 보다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창업자들의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섭외하기 어려운 저명한 강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예산 규모 마련→ 창업자들에게 양질의 교육 컨텐츠 제공

둘째, 학위과정이 아닌 비학위과정,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교육 등 교육방식에 있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립

(사례 2). <u>재직자</u> 교육: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LMS 시스템 운영

(활동내용) 경상북도 소재 중간/통합지원기관(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지역과소셜비즈 외 2개소)이 공동운영 중인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업 내 청년 재직자들을 위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 및 운영

(협업효과) 일반창업 교육분야에 비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사회적경제 영역 현황 반영 및 경북지역의 광범위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 재

직자들이 용이하게 수강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교육 제공.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대부분이 아직은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직자의 근속연수가 길지 못하며 물리적인 처우개선이 즉시 일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짐.

셋째, 대학이 보유한 사회적경제 분야 교육콘텐츠(교육 프로그램, 강사 정보 등) 공유

다. 교육: 영남대학교 기업가센터 LMS 교육 협력

(활동내용) 남부권 창업교육거점대학으로 선정된 영남대학교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9년째 운영 중인 대구대학교가 창업교육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가 및 중간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LMS 교육 서비스를 제공

(협업효과)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지역에 소재한 주요 대학들이 모두 사회적경제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교육기관으로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각 대학이 가진 강점과 협업 가능한 지점을 파악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남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와 개발한 '온라인 사회적기업가 Nano-Degree' 교육과정을 LMS에 탑재하였으나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사회적경제 창업학교 운영을 통해 매년 창업가 대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대학교는 커리큘럼 다양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두 대학 간 교육서비스와 교육생 pool을 교류하여 기 개발된 교육시스템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교육생들은 편리한 교육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는 시너지로 창출되고 있다.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구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자활기업
경상북도 (1,548개소)	155개	182개	149개	159개	815개	88개소
대구광역시 (1,101개소)	69개	107개	92개	74개	723개	36개소

* 2021. 3. 기준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 현황>

구분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경상북도 (10,544명)	3,875명	4,369명	2,021명	279명

* 2020. 9. 기준

9. 사회적경제 대학교육포럼 토론문

이재민(전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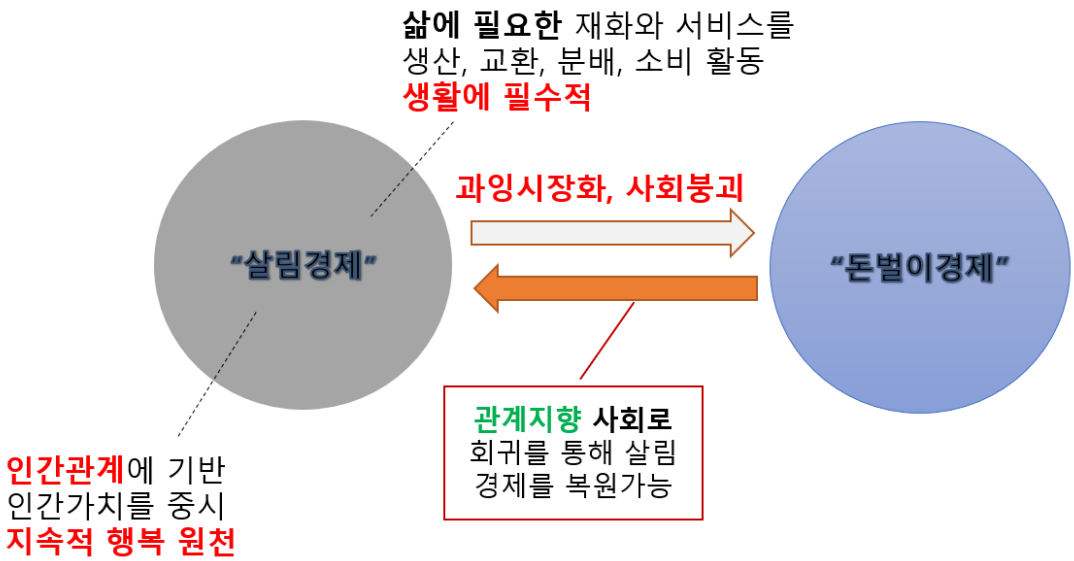
{질문} 발제문을 읽고 생기는 질문들

이 재 민
(전주대학교)

- 사회적경제는 공통된 언어로 정의될 수있는가?
- 사회적경제 교육을 모든 대학이 공통된 내용과 과정, 방식으로 개설 하는 것이 맞나?
- 정부주도(유도)형 사회적경제 교육이 옳은 방식인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를 정부주도형으로 추진해온 것에 대한 평가가 우선 되어야하지 않나?
- 정부주도형 사회적경제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흘러갔듯이, 현재 사회적경제교육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 대학에서 사회적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특히 사회적경제교육은 실천중심, 현장중심, 지역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이론가가 교육시키는 것이 옳은가?
- 대학은 사회를 모르고, 사회는 대학을 모르는 현실에서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교육은 어떤 방식일까?

※ 4H(Head, Hand, Heart, Harmony)를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대안대학, 슈마허 대학의 정신을 생각한다.

■ 사회적경제의 기능



▶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비시장 구분 없이 살림살이경제를 지향하며, 돈벌이경제는 시장경제만을 의미한다.

▶ 사회적경제는 돈벌이경제가 인간의 본능친화적이지 않으며, 제도 등 환경변화를 통해 사익추구의 경쟁적 문화를 신뢰기반의 호혜와 협력적 문화로 변경시킬 수있다고 본다.

■ 사회적경제의 규범적 정의

▶ 우리 사회적경제 교육의 목표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경제 기업을 확산시키는 것인가?

■ 전주대 “창업경영금융학과” 사회적경제 관련 커리큘럼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이 필요하며,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현장실무중심 혁신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

- 논리 및 창의적 문제해결교육(PBL)중심 사회적경제 교과 구성
- 성인친화형(지식보다 경험 및 창의 융합 중점)중심으로 진행
- 디자인씽킹과 리빙랩, 기업경영실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구성
  ※ 사회적가치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이를 사회적경제 기업창업 및 운영까지 연결해나가는 실행과정 중심으로 교과구성
  ※ 사회적경제 활동경력, 사회적경제 가치관을 갖춘 교수로 선별하여 학생들이 전통경영학이나 경제학과 가치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
  ※ 호혜, 협력, 공정, 참여민주, 생태적 가치관은 “행복경제학(학과교양)”에서 교육
- 2개 융합전공(혁신리빙랩, 사회적경제)와 7개 마이크로디그리로 구성
  ※ 마이크로디그리는 교육과정을 명료화하고, 취창업시 민간자격증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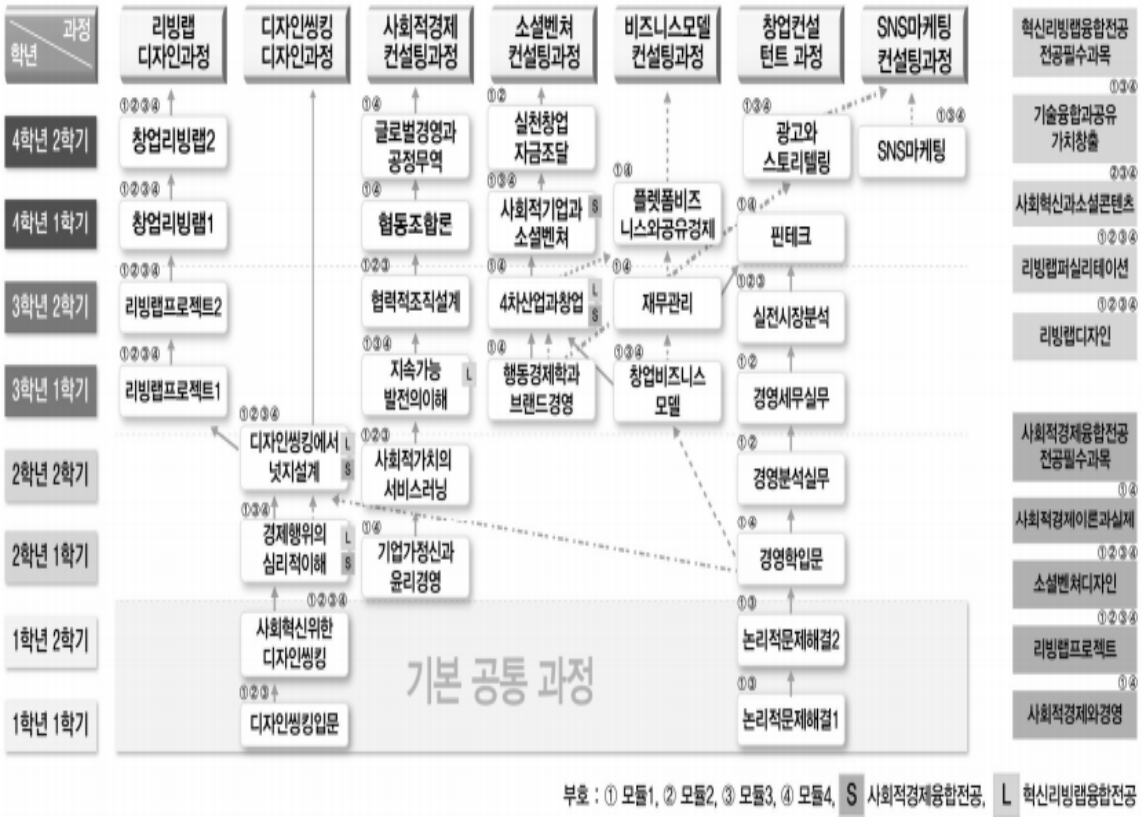
▶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

- 2020년 디자인씽킹, 리빙랩 등을 지역문제해결형으로 수행(전주공동체화폐 꽃전 소액대출은행 설립 리빙랩, 전라북도 공유경제플렛폼 리빙랩테스크베드 구축, 전주지역자활 청년창업 리빙랩 등)

▶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를 학부수준에 둔 전주기전대, 군장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갖고 커리큘럼과 교과내용을 상호협의하며, 비학점교과 교류 중

- 지역의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중간지원조직와 교육내용 등 협의(2021년 두 차례 포럼) → 리빙랩 발굴, 활동가 협력 네트워크 공동구축
-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공유경제전문가과정), 전주사회혁신센터(리빙랩퍼실리테이터과정)과 협력하여 지역사회혁신 토대 구축 중

【 교육과정 모듈화를 통한 마이크로디그리 체계도(창업경영금융학과) 】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법적 범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0

발의연월일 : 2020. 7. 14.
발 의 자 : 윤호중、이학영、윤관석
임호선、김종민、김성환
김정호、김영배、박홍근
박주민、신동근、한병도
조승래、장경태、조정식
의원(15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중앙회 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는 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거. 그 밖에 기업ㆍ법인ㆍ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